朝鮮日報
十三日夕刊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時評

獨立門네가 가느냐

×

長白山에 가을바람이 솔솔하드냐? 鴨綠水에 봄물결이 고요하드냐? 三角山 솟은峰에 여름구름이 어리엇다 아아 지는해 넘어가는달 헤러지는 꼿 흘르는 물 무엇하나 이人世의 덧업슴을 속살거리지 안홈이냐? 春風秋雨累十年에 無色 허울로 오고가는 나그네의 寂寞한 感懷만 널으키든 獨立門 네가 가느냐?

×

西船煙塵天下晦 東邦日月萬年明 高宗帝三年로 쉘머넌 提督에게 거느린 佛艦隊가 江華島를 侵入하든 當時 그를 擊破한 大院王의 豪吟한 詩이다 그러나 이 開國進取의 好機會를 일흔 朝鮮은 드되어 形勢日非의 運命을 促成하엿다 그리고 前後反覆하는 騷亂과 事變은 으쭉한 거름식 失敗의 深淵으로 朝鮮을 끌어너엇다 그리하야 高宗帝三十一年甲午 東學亂 뒤를 이여일어난 日淸의 戰役 및 그로因한 馬關條約第二條에 依한 朝鮮의 獨立은 다만 大期의 併呑을 爲한 陰險한 強隣의 陰謀를 意味함이엇다 蕭條한 朝鮮의 政治的 事情을 背景으로 風雨中에 孤立하엿든 獨立門이 日本人의 治政下에 이니 헐리게 되다는것은 자못 當然한 運命이다 아아 그러나 獨立門 네가 가느냐

景福宮中綠草長

×

『윌넬뎀비렌』의 繁昌한 市街로부터 『쇠게쓰·알레』外지 가는 길거리에 次第로 늘어선 『부란덴부르그』門과 凱旋塔은 獨逸人의 榮譽니 오伯林市의 偉觀이다 『나폴네옹』의 凱旋門은 凱旋거리의 華麗한 排舖와 함께 佛蘭西人의 빨을 엿내는 標的이 된다 『류다폴간』 廣場에 우뚝선 『넬손』의 紀念碑는 英帝國의 隆盛한 運命을 외처말한다

×

그리고 華盛頓의 中央廣場에 世界萬國의 石材로 建設된 獨立百年의 紀念碑는 米合衆國人의 雄大한 領魂을 象徵하는바이다 그러나 風雨에 부닷긴 無味한 거리의 獨立門은 이제 문허지게 아니든 허버리게 되엿다 景福宮中에 綠草가 자란다 十九世紀의 末葉 二十世紀의 劈頭 朝鮮失敗의 標的인 獨立門이 헐리게 되는 것은 또한 必然한 理勢이다

他力乎自力乎

×

勝利와 凱旋은 侵略과 征服을 意味하는바이다 吾人은 그를 더 말치안는다 그러나 解放戰의 勝鬪에 잇서서 他力을 依賴할 수 잇슬가? 一七八二年 米國의 獨立은 佛國을 中心으로 歐洲列國의 援助가 잇섯지마는 大部가 自力의 成果이다 一八六○年 伊太利의 統一 및 獨立은 또한 그러하엿다 그러나 一八三○年 希臘의 獨立은 全然 英佛列國의 援助에 因한 他力의 成果이엇다 十九世紀末初頭 『나폴레옹』 戰亂中에 獨立된 南阿米利加諸國은 熟柿式의 偶然에 갓가운일이엇섯다 그리고 歐洲大戰後 新興한 中東歐洲의 列國은 他力 및 自力이 相半하든바이엇다 그리고 그는 곳 그 國民의 消長盛衰에 嚴肅하게 反映되엇다

×

釜山港의 朝鮮人은 圓斜가 急한 山地로 驅逐되엇다 大邱大田으로부터 永登浦 龍山 그리고 京城一帶로부터 南來하는 거들의 勢力이 全朝鮮을 威壓하는판이다 慕華館이 넷터 寂寞한 義州街道에서는 문허저가는 獨立門 이 他力의 產物인 獨立門이 日本人에 依하야 헐리려 하는것은 차라리 當然하다 아아 그러나 新時代의 眞正한 解放은 장차 어써케?

英佛과 經濟絶交

國民黨執行委員決議 絶對로目的貫徹期必

(香港十二日發) 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는 對外經濟絶交의 目標를 英佛에 嚴重히 하자하야 左의 決議를 하엿더라

今次沙面事件의 責任者는 英佛兩國이오 日本은 此에 參加치아니한 故로 中國은 英佛과 經濟絶交를 實行하야 兩國의 物貨를 排斥하야 어대外지든지 目的의 貫徹을 期必함

罷工派國民聯會

印、安、朝、臺、中國代表로 ……十一日正式成立

(廣東十二日發) 印度、安南、朝鮮、臺灣及中國人等으로 成한 罷工派國民聯合會라는 것이 十一日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에 開催되야 正式으로 成立된바 各代表의 演說이 잇섯스며 近近 同大會를 開催하리라더라

罷工委員會通電

(香港十二日發) 全國總工會罷工委員會는 上海에 開하고 香港沙面罷工者 二十萬의 工友는 一齊히 反抗運動을 繼續하자는 뜻으로 通電하엿더라

重慶形勢益益惡化

居留日本人의 進退維谷

(漢口十一日發) 重慶의 日本居留民은 事態益益惡化하는 兆朕이 잇슴으로 宜陽丸으로 宜昌外지 撤去하기로 決定하엿스나 同船은 中國人船員罷業으로 因하야 運轉에 支障이 잇슴으로 十二日漢口碇泊中인 軍艦對馬로부터 水兵四十名을 重慶에 急行하야 應援식힐터이라더라

奉天에 兵工廠增設

張氏의 失業職工收容策 上海事件의 募集한 義金으로

(奉天電) 張作霖氏는 東三省에서 上海事件을 爲하야 募集한 義金三百萬元으로 奉天에 兵工廠을 增設하야 失業職工을 收容할터이라더라

工部局權限問題로

倫敦會議開催決定

(北京十二日發) 北京公使團은 上海工部局權限問題에 關하야 各本國政府에 請訓한 結果 各國은 急히 倫敦會議를 開하고 協議決定하기로 되고 工部局責任者處罰問題도 其結果를 待하기로 되엿는대 日本에서는 林大使가 出席할터이더라

愛國運動엔 勿論讚揚

但秩序保存에는 注意하라 ◇北京政府對各省訓令

(北京十一日發) 重慶其他各地의 排外運動에 鑑하야 政府는 今回 各省에 對하야 左와 如한 通電을 發하엿더라

上海事件에 關하야서는 政府는 正義를 奉하야 조금도 讓步치아니하는 人民의 愛國運動은 勿論讚揚할만하나 각금 外人의 住宅을 破壞하는等 事가 不少하니 將來群衆運動에는 努力하야 秩序를 保存함이 緊要하다 云云

日人關係工場엔 復業條件提出

(上海十一日發) 中國罷業者側은 資金其他의 關係로 罷業繼續이 困難하게 되여 日人關係工場에는 復業하기로 決定하고 公務署警察廳長을 經由하야 復業條件을 提出하엿더라

官兵과 馬賊衝突

官兵十名拉去

東三省陸軍步兵第七旅三十七團二營五連連長孟憲洪은 部下百五名을 引率하고 馬賊을 討伐코자 通化縣道牛堡機頭溝方面에 出動하야 數日前頃에 約八十名의 賊團과 衝突하야 官兵十名의 拉去를 當한 우에 多數의 重傷者를 出하엿더라

露中提携成立說

上海商議會長의 警告

(市加古十一日發) 羅馬法王廳靑年式參列途中 當地에 들인 上海商業會議所會長 『라요키』는 萬一列國이 가장 深甚한 注意로 中國時局解決에 善處치아니할時는 露中提携가 成立될는지 도알수업다 警告하엿더라

露國飛機

東省通過拒絶

(奉天電) 東三省內의 飛行을 더러 朝鮮經由도 不能 拒絶當한 露國飛行機六臺는 馮玉祥氏의 斡旋으로 東三省을 通過치 아니하는 範圍에서 庫倫으로부터 北京에 飛來하기로 되야 近近 北京에 到着할 豫定인대 同地到着後 二機는 日本訪問하는 길에 東三省에 敬意를 表코자 飛來하겠다는 뜻으로 張作霖氏에게 提議하엿스나 如何한 理由든지 東三省內는 飛來할 수 업다는 뜻으로 回答하고 加하야 李景林 張宗昌 兩氏로부터도 直隸山東兩省通過를 禁止한바 日本飛行도 困難케 되엿스며 該機는 軍用偵察機로 寫眞無電其他의 裝置를 施設하엿다 傳할뿐아니라 張氏는 事事이 勞農露國을 시더하는터이더라

罷業과 惡疫

(香港十二日發) 中國人罷業以來 掃除不充分함으로 炎暑에 際하야 惡疫이 流行할 念慮가 잇서 香港政廳은 囚人으로 此의 勞役에 服케하엿더라

探險飛行船費

縮少節約

(나우엔 十二日發) 國際極地探險協會의 發表한바에 依하면 北極地方探險에 用할 特別『첫페린』飛行船을 建造할 資金은 一般公衆으로부터 募集할터인대 同協會와 『첫페린』工場長 『에케넬』博士와의 間에는 協定이 成立되야 新『첫페린』船은 最初計劃한것보다 現著히 縮少하야 百七十五萬弗을 節約하기로 되엿더라

애氏極地探險

計劃完成

(나우엔 十二日發) 『아문젠』大佐도 近近 『에게널』氏와 會見하야 同探險計劃을 完成할터인데 探檢은 一千九百二十七年夏에 行하게될줄로 期待되더라

勞農露西亞의 現狀 (三十二)

金俊淵

宗敎의 解放

우리에다가 『도야지』를 가두워두고 그를 배부르게 잘멕이는 사람의 心事는 말할것도업시 明白하다 『도야지』는 배부르다고 太平을 노래하고잇다 可憐한 그 도야지의 身勢!

露西亞에서는 宗敎를 잘 가두어두고 배부르게 밥을 먹여주엇다 그리하는 帝王의 心事가 무엇이던가? 그리하지마는 宗敎는 興旺을 자랑하고잇섯다 可憐한 그 宗敎의 將來!

『富者가 天國에 들어가기는 駱駝가 바늘구멍으로 지내가기보다 더어렵다』는것은 그들이 잘아는바이다 또 『가난한사람은 福이잇나니』하고 그들은 說敎하기를 마지아니하엿다 하엿스나 宗敎는 畢竟 도야지가 되여서 우리속에 들어가 飽食하고잇섯슬뿐이엇다 天國에는 永遠히 안들어가기로 단단히 作定하고 宗敎는 富者가 되엿다 永遠히 天國에 못들어가게된 宗敎이라면 魔鬼의 손에 들어간 宗敎가 아니고 무엇이엿겟느냐? 『버가 이世上에 온것은 平和를 나리려온것이 아니라 불과 槍을 내던지려왓다』고 부르지진 그이는 現狀을 打破하고 『病든者들을 救援하기 爲하야왓다』고 宣言하엿다 그리하엿는데 露西亞의 宗敎는 全혀 支配階級의 도야지가 되고말엇다 그 宗敎가 旺盛하다고 미든 그때에는 발서 그 宗敎는 生命을 일허버렷다 國民의 阿片이 되고말엇다

一千九百十七年十一月七日의 共產黨革命은 露西亞의 宗敎로 하여곰 다서 天日을 보게하엿다 우리에 가두워두엇던 도야지를 山으로 내여보냇다

露西亞革命은 참으로 宗敎를 解放하엿다 萬一 그것이 自體內에 生命力이 잇는것이라면 成長해나갈것이고 生命力업는것이라면 死滅하고 말것이나 只今外지는 挾雜으로만 살어갈수는 萬一 挾雜으로만 살어갈수잇는 宗敎다면 千萬番 업서지더라도 조곰도 섭섭할것이 업슬것이다

露西亞의 宗敎야! 비의 守神은 魔鬼이엇다 너는 돈탈은 魔鬼의것이엇다 너는 今日 土地를 일코 金銀珠玉을 일코 모든 特權을 일허다 너 얼마나 오랫동안 貧民의 膏血을 싸먹엇더냐? 너도 只今은 좀 벌게벗고 나서서 남과가티 힘을 려먹고 살어보아라 勞農露西亞에서는 『일하지아니하는者는 먹지말라』는 原則이 嚴定되여잇는줄을 네가 알어야한다 萬一 일하기 실라면 너는 밥먹지 말엇스면 될것이다 勞農政府의 宗敎에 對한 態度는 와갓다

只今이야말로 참으로 露國民은 信敎의 自由를 엇다 信敎의 自由가 成立되려면 不信敎의 自由도 認定되여야하는것이다 그런대 帝政時代에 露西亞에 잇서서는 宗敎 미들수만 잇섯고 안미들수는 업섯다 그럼으로 그에에는 도모지 信敎의 自由가 업섯다 僧侶들은 財狼之心을 가지고 貧民을 搾取하고 또는 搾取하는 階級을 擁護하기에만 汲汲하엿섯다 그 罰로 그들에게 被選擧權 選擧權을 주지아니한것은 참 當然한 일이다

露西亞憲法第十三條에는 『勞働者에게 良心의 참自由를 保障하기 爲하야 學校는 敎會로부터 分離하며 敎會는 國家로부터 分離한다 그리하야 宗敎的宣傳 反宗敎的宣傳의 自由를 人民에게 附與한다』고 하엿다 즉 이와가티하야 政敎가 分離되고 敎會는 特權을 일허버렷다 그리하엿스나 革命의 暴力에 依하야 解放되엿것이오 宗敎는 도로혀 擁護된것은 아니엿다 憲法에 規定된것과가티 明白히 信敎의 自由를 承認하엿다

世上에서는 勞農政府가 宗敎를 極端으로 壓迫하야 敎師라고만 보면 當場에 銃殺하고 敎會라는 敎會는 막 破壞해버렷다고 宣傳하는 사람도 잇다 그러나 그것은 全혀 誣傳이다 只今도 露西亞의 各處에 美麗한 尖塔들이 依然히 솟아잇고 敎會堂이 依然히 잇고 僧侶들은 昔日의 形態를 그대로 가지고서잇고 敎會의 禮拜도 퍽 自由롭게 擧行된다 勿論 牧師가 殺戮當한일도 잇고 敎會가 破壞當한일도 잇다 한다 그러나 그것은 牧師가 反革命運動에 參加하엿기 때문이오 敎會가 反革命陰謀의 巢窟이 되기 때문이엿다

露西亞의 宗敎는 只今은 매人도야지(山猪)가 되여서 山林間에 自由로 來往하면서 自己의 食物을 自己가 차저야하게 되엿다 勿論 또 어느 砲手든지 와서 任意로 잡어갈수도 잇다 즉 이點이 反宗敎的宣傳隊의 엿보고잇는 點이다 露西亞共產黨은 只今 이 皇帝의 우리속에서 解放되여나온 希臘正敎를 잡어업새려고 反宗敎的宣傳隊를 派遣하야 그것을 追跡하고잇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政府側에서는 宗敎的宣傳도 勿論 許諾하는 故로 兩者의 思想戰은 今後의 興味잇는 求景거리가 될것이다

葡國의 武器輸送

同國의 在中利益을 擁護코자

(나우엔 十二日發) 葡萄牙政府는 中國에 잇는 同國의 利益擁護를 爲하야 兵器彈藥等을 中國으로 보냇더라

獨佛通商條約調印

(나우엔 十二日發) 有効期間四個月인 獨逸과 『자ー르』地方의 通商에 關한 獨佛條約은 九日巴里에서 調印되엿더라

獨銀總裁의 釋明

(나우엔 十二日發) 獨逸帝國銀行總裁 『샤하트』氏는 米國準備銀行總裁 『스트롱』氏와 英國銀行總裁 『노르만』 兩氏의 伯林訪問과 『또ー스』案實行을 爲하야 國際借款에 關係잇다는 說을 否定하고 英國의 金本位를 回復케함에 就하야 刻下의 會議를 必要로하는것이라고 述하더라

伊機訪日飛行

十五日멜보른發

(羅馬十一日發) 伊太利濠洲連絡飛行을 了하고 『멜보른』에 滯在中인 『네·피네드』中佐는 伊太利航空部에 電信으로 『飛行機는 쓰조흔 狀態임으로 余는 七月十五日에 訪日飛行을 繼續하것다』 報하엿더라

稅制整理原案

近近決定

(東京電) 政府는 兩三日中에 稅制整理에 關한 原案을 決定하기로 되엿는데 政友會는 地租委讓이 意外로 貴族院方面의 評判도 不好하고 國公도 此에 贊成치아니한다 함으로 結局 政府案을 承認하는수 밧게 업스리라더라

多額議員選擧와

兩院의 爭覇戰

(東京電) 來九月十日의 多額納稅議員選擧에 就하야는 貴衆兩院의 各黨各派에서 均一히 對岸에 腐心인것은 勿論이어니와 特히 公正會로서는 研究會의 絶對勢力을 打破하기 爲하야 友黨關係인 無所屬者及各派와 頻頻히 策應하는 態樣인데 自然 研究會 交友兩派에서도 此의 對策에 苦心치아니하면 아니될터이오 研究會가 先例를 打破하야 常務員會의 暑中休暇를 廢止한바 右는 勿論 政黨의 協調前途에 疑問이 큰 事態도 重大한 原因임은 分明하나 오히려 더 接近 原因은 곳 多額議員選擧에 잇서서 其結果는 곳 研究會의 勢力消長에 重大한 關係가 잇슴으로 今後는 多額議員選擧에 對하야 積極的 聲援을 加하야 可及的 自派에 諒解잇는 議員의 選出에 努力할 作定인 으로 今後도 舊領地又는 其他의 緣故關係를 주어 候補者의 擁立又는 新多額者立會에 就하야 劃策을 할터인 說據인대 此點은 幸無西派도 同樣의 事情임으로 選擧期日이 切迫함에 달하 貴衆兩院에 通하야 直接間接의 爭覇戰이 激烈히 演出되리라더라

鮮臺兩銀整理

大體案成立

(東京電) 預金部關係의 國際貸付整理에 關한 問題는 逐次 解決되엿스나 次回의 委員會에서 問題가 될것은 例의 朝鮮銀行及臺灣銀行問題로 此等兩行整理에 關한 大藏省當局의 大體案이라는 것은 이미 成立되야 目下 此案에 基하야 關係方面과 交涉中인바 最後의 決定案을 보기外지는 아직도 相當한 折衷을 要치아니하면 아니될터인대 如何間 今回 決定한 國際整理案은 鮮銀臺銀兩行整理의 軌範이 될것으로 此에 依하야 大藏省又는 預金部委員會의 各種整理問題에 對한 態度를 知得한터로서 當局은 此等을 整理함에는 其利率의 免除 據度等을 少하야도 郵貯利子以下로 引下한것이니 四分八厘로 三分外지 引下할것을 窺知한것으로 此點으로부터 鮮銀臺銀의 貸付利子는 五分이 二分以下의 三分이 될것을 知得한 셈이더라

北海道開墾費

朝鮮에 轉換希望 下岡政務總監談

日本農林省에서는 年年近七十萬人의 人口增加에 對한 緩和並食糧問題의 解決策으로 三億圓을 投하야 北海道의 開拓事業에 着手하고 大大的으로 水田을 開墾할것을 計劃하는듯한데 余는 此의 計劃을 차라리 朝鮮에 轉換하면 如何할가 思한다 少하야도 日本의 食糧問題를 期함에는 朝鮮內에 잇는 產米增殖計劃의 實施가 最히 急務이다 今日에 若三億圓의 巨資를 朝鮮에 投한다 할진대 四五十萬町의 水利事業은 當場에 實行되여 五百萬石內外의 產米를 得하는 同時에 人口問題도 解決되여 一擧兩得이라 할수잇다 北海道案을 轉換하야 朝鮮으로 此의 計劃을 實施하야 益益產米增殖을 助成하여주엇스면 幸甚이라 云云

人類는 猿의 進化? ……神의 創造?

現下米國法廷의 大問題 떠우인進化論講義가

(華盛頓十日發) 米國 『케네시』州에서는 『떠우인』의 進化論을 學校에서 講義함을 禁하는 州法이 制定되엿다 그런데 同州 『데ー톤』町의 『존、스코ー프』라고 하는 大學敎授는 學生에게 此를 講하야 다하야 拘引된것이 目下問題가 되야 裁判한 結果는 『人類는 猿으로부터 進化하얏다』 云하는 『떠우인』說이 眞正인지 又는 人類는 神의 創造에 保한 것인가를 決하는 것으로 『데ー톤』町에는 多數한 傍聽人과 各新聞社特派員이 聚集되얏스며 被告의 公判은 十日朝부터 開廷되얏다 若被告가 有罪하다 하면 五百弗의 罰金을 當할뿐이나 問題는 此에 不止하고 延하야는 人間은 神의 創造한 것이라는 基督敎의 槪念에 抵觸하기로 되얏고 且 敎育者가 納稅者에게 授할 學問의 種類를 限할 權利가 잇는與否도 裁判하게 될 것임으로 敎育界는 勿論 宗敎界에도 多大한 注意를 惹하는中인데 判決은 七月末外지 걸이리라더라

鐵筆寫眞

投稿歡迎

압픈니는 쌕아야지

專賣局豫算方針

前年度踏襲決定

專賣局十五年度豫算은 各支局의 要求도 全部提出되여 大體의 編成을 終了하엿는 故로 今明日中 更히 財務當局의 諒解를 求할터이라는데 新規事業으로는 南市鹽田二百町步 十六萬圓 及 君子鹽田百六十町步 四十萬圓 合計五十六萬圓을 計上하야 事實上 關東大震災로 中止되엿던 擴張工事의 復活을 計劃한 以外에 鹽庫、鹽夫舍等 鹽田經營에 必須의 設備의 充實에 四萬圓을 要求하엿슬뿐이오 其他의 事業方針으로는 所謂 緊縮方針에 則하야 大體 前年度分을 踏襲하기로 一決한 模樣인대 製煙乃至採鹽上 特히 積極的 計劃은 殆無한듯하고 오직 自家用煙草의 廢止及民間葉煙草의 禁止에 就하야는 豫算圈外에 當하야 考慮하게 되엿스나 然이나 此도 總督府의 方針에 據하지 안으면 안되겟는 故로 假令 施行한다 하더라도 十五年度에 實際

黃禍는 발서 現實

日本의 人口過剩을 思하라 ◇濠洲는 白人으로 채워야 한다

(씨드니 十一日發) 『씨드니·텔레그래프』紙는 黃禍問題에 關하야 左와 如한 社說을 揭載하엿더라

日本이 過剩人口의 解決策을 講究할 必要는 아마 吾人의 생각지 못하는 동안에 切迫하여 오리라 日本은 人口過剩으로 因하야 벌서 不得已 食糧을 輸入하게 된 狀態인바 此際 濠洲는 宜當히 白人移民을 歡迎하야 不少한 日本移民의 渡濠를 阻止하여야 될것이라 벌서 黃禍는 杞憂가 아니오 分明한 現實로 되엿다 吾人은 此際에 濠洲를 白人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滅亡할 밧게 수업스니 即今 곳 此方法을 開始한다 할지라도 果然 日本移民의 脅威를 完全히 防止할수잇는 時間이 充分이 잇는가 업는가는 疑問으로 思한다 云云

化됨與否는 아직 全혀 未知數라더라

下水改修起債

總額三十萬圓

京城府의 第二期下水改修工事는 今十四年度부터 十九年度外지 六個年繼續事業으로 總改修費三十萬圓을 每年五萬圓式을 分賦支出하야 完成하기로 決하엿는데 此의 財源起債를 日本側、朝鮮側의 例年에 求할가 하는것이 未決定이기 때문에 從하야 着工에 至치 못하엿다 그런대 府當局에서는 朝鮮產業資金의 潤滑을 圖하기 爲하야 從來의 緣故를 따러 安田銀行을 通하야 日本資金의 渡入을 策할는지 又는 朝鮮金融界의 現狀에 觀察하야 此際 內鮮金融業者로부터 借入을 斷念하고 朝鮮殖產銀行의 二途에 就하야 專혀 考慮中인바 要컨대 貧弱한 府財政의 現狀으로 보아서 年八分乃至八分五厘範圍의 低利借入을 條件으로 할것과 如하더라

新、城間航路

月十五回定期連絡

咸南新浦와 咸北城津間의 交通連絡은 陸上으로는 鐵道及自動車輸送의 途가 잇스나 十時間 十圓三十五錢을 要하며 또는 海上으로는 元山、雄基、雄基關門兩定期航路의 寄港地에 當하나 元雄線은 月八回 雄門線은 月四回의 寄港에 不過하기 때문에 貨物旅客의 輸送에 不便을 感하는데 今回 阿部辰之助氏는 新浦城津間海上六十五哩에 月十五回往復三十回의 定期連絡航路開設을 關係咸南北兩道當局에 請願하는 同時에 遞信局에도 受命航路開設及年額一萬圓의 補助下附를 懇望하엿다더라

平元線起工問題

關係地方促進熱再燃

平元線의 起工促進이 近者 平元兩地方에서 다시 始作되엿스며 咸鏡線의 建設이 今日갓치 遲遲不進하여서는 同地方의 開發을 爲하여서던지 鐵道自體의 業績向上을 爲하여서던지 不利라 하는 이만큼 今에 直時 平元線에 着手함은 困難하다 한다 十五年度의 新設改良費도 一千萬圓의 諒解는 中央政府와의 間에 成立되엿스나 年度割과 가티 千六百五十萬圓을 取함에는 만흔 努力을 要한다 如何間 鐵道局은 此際에 咸鏡線의 全通에 全力을 注하는듯하고 其大體의 工程이 終了되기外지는 鎖昌線以外는 新線의 起工은 極力躊躇할듯하다더라

點字發明紀念祭

(나우엔 十二日發) 獨逸盲人國民學會는 『브레ー르』의 點字發明百年紀念祭를 巴里에서 擧行하엿더라

京城商議委員決定

本月卄三日부터 三日間 元山에서 開催될 第八回全鮮商議聯合會에 京城商議로부터 出席할 委員은 左와 如하더라

西崎源太郎 陣內茂

元山滿粟廻着狀況

元山에 廻着하는 北滿粟은 目下 鐵道便으로 每日 三車平均이라는바 價額은 一等品 一袋十二圓八十錢부터 十二圓五十錢外지며 白粟은 四十圓三十錢이라더라(元山)

八面鋒

○張作霖閣下가 三十萬元을 들여서 失業職工救濟를 한다고、看板을 걸어노코 兵器工廠을 增設한다나 羊頭狗肉의 好標本、

○그 三十萬元의 出處 더군다나、今番上海事件을 援助하기 爲하야 모은 돈이라 한다、

○反帝國主義運動을 援助하라는 돈으로、兵器製造를 한다면 돈도 應當身世 恨嘆을 할듯

蚊帳 모기장

(尺數는 曲尺)

▲各種모기장元價提供

◆日本마사蚊帳
長六尺 廣三尺五寸(二人用) 一件 二圓三十錢
長六尺 廣五尺五寸(三人用) 一件 三圓九十錢
長六尺 廣六尺五寸(四人用) 一件 四圓五十錢
長八尺 廣六尺五寸(五人用) 一件 五圓 十錢
長九尺 廣六尺(大人用) 一件 五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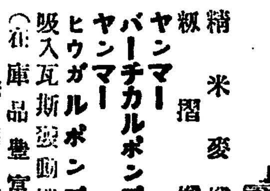
◆西洋마사蚊帳
一件 七圓五十錢
一件 九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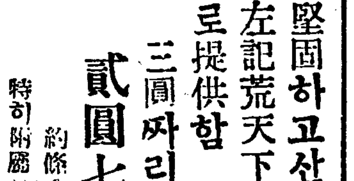
●正確한尺數 ●價格低廉
尺數는 注文主의 隨意로 製造도 하오니 所用되는 尺數대로 注文하시옵소서

各種蚊帳製造都賣商 寶光號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十四 振替京城 一二六六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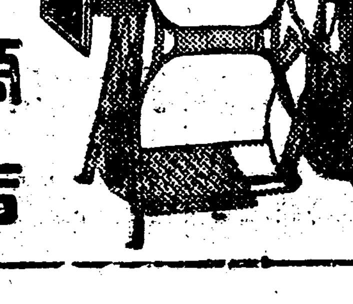
電話買入
電話月賦販賣並假券買入
鍾路四丁目五十番地宗廟越便
電話商會 主 楊化謙
電話光化門一四五○番

靑年男女日英文翻譯員希望者는 午前八時로 午後二時外지 來臨하시오
貞洞一ノ二八 씽거ー會社京城中央店

最高級品 名譽大賞牌受領 於各博覽會
最新式 ヤンマー 石油發動機

精米機 製粉機 ヤンマー バーチカルポンプ ヤンマー ヒウガルポンプ 吸入瓦斯發動機 (在庫品豊富) (目錄進呈)
京城南大門通一丁目(電車通) 大阪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本店大阪、支店東京、福岡
各地特約店
京城太平通二 曾我商店
釜山富平町一 齋藤鐵工所
京釜線龜浦 溝井商店
大邱元町二 杉浦商店
忠南江景 櫻井商店
忠南公州 濃州支店
黃海載寧邑 材木商會出張所
京義線沙里院 荒木商店
元山本町四 宍戶商店
咸興大和町一 金禮韻商店
咸南北靑 呼倉商店
淸津彌生町 太田金物店
平壤黃金町 金並工務所
(各道特約店募集)

紳士諸氏의 夏節愛用品

堅固하고 산뜻한 白洋靴
左記荒天下之破價格으로 提供함
三圓짜리를 貳圓七拾錢에
約條金五十錢要先送 特히 附屬品一式은 代價업시
本店에 特色은 一見美麗
京城鍾路西四丁目九十七番地 文明洋靴店

田中丸病院
院長 田中丸醫學士
內科、小兒科 副院長 菅 總治
外科、皮膚科 河 醫專學士
X光線 듸아데루미ー科 佐久間技師
◎普通病室以外隔離病室도잇사옵
(京城府西小門町二一 電話光化門八六五 一三八六)

◇經濟되는 싱거ー재봉틀
手廻型 一個 十五圓以上
足踏型 六十五圓以上
右內外其他 各種新古品 正價로 販賣하오니 陳列場을 參觀하심을 歡迎합니다
地方의 注文은 現今잇는 價表를 求하시는대로
械器의 修繕은 永年의 經驗으로 完全確實히 합니다

京城府鍾路貳丁目七 電話(光)參九六番
楠商店

東亞文化協會直營一週年紀念 特別大興行
세시루、비ー、도미루氏 監督
屠殺者 全十卷
名花 젠ー、노바크 主演
人情劇 雪靴의 跡 全七卷
入場券은 無料로 드립니다
朝鮮劇場 電話光二○五番

七月八日水曜부터 差換
實寫 高速度 全一卷
喜劇 獅子와 婦人 全二卷
人情劇 羊飼의 娘 全五卷
國話探險 巖窟女王 全五卷
第三篇 危險한 山道 第四篇 恐怖의 汽車 第五篇 寺院의 牢獄 上映
日活特約 優美館 電話光三九五番

七月十一日부터 封切 當日問題의 大名畫公開
實寫 國際時報 全一卷
米國유社作品 西部劇 裁斷의 日 全二卷
人情 深夜의 女賊 全五卷
獨逸위화社超大作 山猫리쉬ー카 全六卷
近來처음보는 獨逸喜劇名篇!
大活劇 鷲의 爪 全三十卷中 (第三回)第五、六編 上演
松竹特約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日本덴자! 大娘曲馬
萬國式自轉車曲乘
世界的大魔奇術
臺覽賜榮 洋犬의 演藝
空中美人의 打消

꼭한번 求景하십시요
七月十三日開演 每日晝夜二回
觀覽料 一等七十錢 二等五十錢 三等三十錢 軍人學生三十錢 兒童十五錢
京城明治町東拓橫空地 金丸曲馬團

◇感懷깁흔獨立門‖헐리라는말을듯고뎍막해가는경성시가서편에우뚝서잇는독립문의 녯일을 뒤뀌보자 일청전쟁(日淸戰爭)의 뒤끝이 어조선이독립국이되후이를긔념하기위하야 당시조선사회에서만의의논을 석리며 어두운동포를깨우쳐려든 서재필(徐載弼)윤 치호(尹致昊)등제씨의 고안으로건양원년(建陽元年)십일월 이십이일에긔공하여그이듬해봄삼월에 마친것이니그후로바람불고비오기삼십년에 만흔변천이잇섯다 필경하야가는 이독립문은실로삼회의눈물을 흘자아내는내상이엇다 그러나일마안되어 그형용은영원히사라지려한다

漢江岸一帶

羅災總數七千戶

류실가옥이 사십여호

災民總數萬六千

이번장마로인하야 경긔도관내의수해상황을듯건대 한강(漢江)중심삼은 연안일대의피해디역중 아직까지묘사를마치지못한곳도잇스나 십삼일정오까지 경긔도에도착된보고를종합하건대 침수가옥이칠천이백십구호에 류실가옥사십칠호를합하야 칠천이백륙십륙호라는놀라운수에이르며 리재민은일만륙천여명에달한다 그러고구호를바든 사람이사천삼백륙십명이라는데 이것을종별로난호아보이면아래와갓다

▲浸水家屋 七、二一九戶▲流失家屋 四七戶▲負傷者 三名
▲罹災民 一六、一三四名▲救護人員 四、三六〇名▲浸水畓 二、七九〇町 ▲道路破損 八六間

龍山署管內

羅災者萬餘名

다행히인명사상은업다

朝鮮人村이尤甚

한강(漢江) 연안의수해는 련일보도하 바와 갓거니와 십삼일에 룡산경찰서(龍山署)에서 그관내의 피해상황을 됴사한바에 의하면 그관내의 침수가옥 이이천여호에 리재인원(羅災人員)이 일만여명인데 그자세한수자는 아래와 갓다

里名	浸水家屋	人員	流失	全壞	半壞	人畜死傷
二村洞	五一四	二、〇五七	四	三	二	馬一死
舊龍山	六八九	二、五七〇	—	—	—	—
麻浦	四四五	一、七一八	二	二	—	—
東幕	六三二	二、三六四	五	五	—	—
孔德里	一五八	五八九	—	—	—	—
西氷庫	五四	二〇一	—	—	—	—
漢江	一七四	六〇二	—	—	—	—
計	二、六六六	一〇、一〇一	一一	一〇	五	畜一死

이것으로보면 금번한강 연안에서수해가 데일심한곳은 구룡산(舊龍山)동막(東幕)이촌동(二村洞)등으로그중에도 피해만키는 조선사람만히사는 동막과이촌동등디이며 마포의피해도 상당한 모양이라하며 각처의자세한손해금액은 방금됴사중 이라한다

今後念慮는傳染病

물이차차줄어전도락관

십삼일부터 한강물은차차 줄기시작하야 이미십삼일 정오까지삼십척미만인현상에이르럿고리재민도 차차집을 차저도라가는현상임으로권도는락관이라하며단지념려되는것은리재민간에전염병이도러다닐증조가보히는것이라한다

堤防決潰

일시는위험

군대활동으로무사

십이일오후네시 십분경에 룡산와사회사(瓦斯會社)뒤에잇는뚝(堤防)이 약삼십척가량이나 문허저서 일시대단한 형세로물이홀러나왓스나,룡산데이십 공병대일개중대일백이십명이총출동하야 뚝막는공사에 종사한결과무사하엿다하며 일시는 왕십리렬도우로도 약오촌 쇠방고에약오촌의증수를보혓섯다

富川郡水害

모내인것이침수

부천군부내면(富川郡富內面)과

경인수도선로의 이북 나 한강연안일대는 십일에 권부침수상태이며모내여노흔약대벌판의수백뎡보는 방금 한강증수로범람되야 부근일대의농작물은 권멸의 상태이며 침수가옥과 기타손해상항은 방금 인천경찰서에서 됴사중이라더라(십삼일오후인천지국뎐화)

金浦郡傑浦里

十六年來初有洪水

침수칠십호

경긔도김포군(金浦郡)한강하류는 십륙년래에 처음보는홍수로 한강연안에잇는 군내면걸포리(郡內面傑浦里)주민 칠십여호는물에 잠기며 그중에삼십여호가가장 참혹하며 당디관민의총출동으로구호하야 십이일오후 한시에 리재민사백여명을그면사무소에 수용하고 구호에노력중이며라(십이일오후김포지국뎐화)

東幕家屋

倒壞三十

七戶流失!

동막방면의 류실가옥이 칠호이오 문허진가옥이 삼십여호인데 방금(십삼일정오)의각동리별을보이건대

◇류실된가옥수
東幕上里二 東幕下里一
新水鐵里一 玄石里一
土亭里二

◇파괴된가옥수
土亭里二〇餘 東幕下里四
東幕上里 二 西江 四
(십삼일정오데일머뎐화)

長安坪만

十萬圓

모다동락의과계

동막(東幕)소유인장안평(長安坪)의데방(堤防)이무너저서 사백오십뎡보의논이 전멸하얏슴으로 로 삼천륙백석(소작료 권팔백석)의추수가 업서지고말엇는데 이뿐아니라 다시 그데방수선비사오만원까지합하면십만원의손해나되는모양이며 무너진 데방의축조당시비용은 륙칠십만원이들엇섯다한즉그손해가실로 막대하다하겟더라

始興郡蠶室里

羅災民二千餘

생사경각에달린이천명

면소와주재소에서구호

경긔도 시흥군신동면잠실리(始興郡新東面蠶室里)일대는 십이일오전 세시경부터 홍수가격증하야 침수가옥이 이백여호이오 리재민이 이천여명이며 문허진집이 무수하야 생사가경각에달렷슴으로 로량진주재소원(鷺梁津駐在所員)과신동면장(新東面長)이출동하야잠실리리긔백(李起伯)씨배세척을비러 구호에노력중이더라(십이일밤송파지국뎐화)

廣州新沙里

침수칠십호

五戶倒壞

경긔도광주군언주면신사리(京畿道廣州郡彦州面新沙里)는홍수로침수칠십여호에 요다섯집이 문허젓다(송파지국뎐화)

盤浦里五十戶

경긔도시흥군신동면반포리(京畿道始興郡新東面盤浦里)는침수오십호인데리재민의형편이비참하더라

京仁도一時危險

긔차개통은무관계

경인선중 인천긔뎜 십오「마일」부근부터 로량진(鷺梁津)까지 수개소의궤도에물이잠기어 털도국보선계(保線係)에서는밤을새워가며 림시로뚝을막어 겨우긔차는운뎐하게되얏스나한때는매우위험하얏더라(십이일오후칠시긔)

流失家屋數百戶

靑年團徹夜冒雨警戒

사상자가무수하나아직미상

영일형산강(兄山江)연안일대는 십삼일오후다섯시경에는삼십척에달하야 형산강(兄山江)연안일대는대개 홍바다로 변하야 형산강부근은 침수가옥수백호와류실가옥도괴(倒壞)가옥은수십호에달하엿스며연일면(延日面)도 류실 가옥이수백호에 달하엿는데 포항각단데에서는성심성력으로 수십척의구호선을보내여 수중에서 구원를부르짓는 남녀를구하야림시로공립보통학교에 수용중이며 포항사청년회(第四靑年會)와로동공제회(勞働共濟會)에 부두(埠頭)남빈뎡(南濱町)과서빈뎡(西濱町)에는 점점 증수되야위반 가옥에위험이 잇슴으로 경계중인데 인명의손해는 아직 알수업다더라(포항지국뎨이뎐보)

鳥致院에四百餘戶

침수된가옥이사백여호

청년단과경관이구조중

충남연기군조치원(燕岐郡鳥致院)시가는삼일동안계속하는 폭우로재작 십이일오전 두시경부터동지난후칠시까지권시가는사척이상의침수가되엿섯는데감수될희망은 아직업고 권괴된호수는 이호에 불과하나 침수호수는사백오십여호에 달하야 피난하는 남녀로소는 물은집을 차저인산인해를 일우게되야 조치원정거장은 일주의여디가 업게되엿는데 각단데와 경관들은 구호단을조직하야 대대뎍으로 활동하는중이더라(조치원)

東幕有志美擧

玄石里三氏

동막현석리 전동현(全東鉉)김만재(金晩宰)장승환(張承煥)삼씨는쌀세「가마니」로현석리부근리재민칠십구호에 대하야 세명에두되(二升)식주엇다더라

漢銀支店

한성은행동막지뎜에서는 동부구락부에 돈삼십원을긔부하얏다더라

沈貞澤氏

동막심뎡택씨는 쌀네「가마니」로 밥을지어 수백여명의 십삼일아츰을 구호하엿더라

韓興喜氏

는돈삼십원을 동막구락부에의탁하야리재민구호에긔부하얏더라

洛東二十三尺

왜관일대수해

왜관(倭館)부근에는련일나리는비로 인하야 락동강(洛東江)의 증수는 이십삼척에 달하고 다수히침수되엿스나 아직 인명의손해는 업스며 성주(星州)대구(大邱)사이의교통은두절되엿는데 당디경찰서와 각단데서는경계중이라더라(왜관지국뎐보)

金泉崩壞百四十戶

시내는구척이나물이들어

女子一名은壓死되엿다

경북김천(慶北金泉)디방에는십일일오후 륙시경부터 큰비가와서 부근일대의 시내는구척이나 증수되엿스며시장(市場)은삼분의이가량이나침수되엿는데상세는 방금됴사중임으로 대강보도하건대본뎡(本町)일대에일백사십호가 문허지면서 리룡이(李龍伊)(兄)라는 녀자한명이무참히 죽엇스며 금릉(金陵)청년회에서는 림시수해구제회를 조직하야가지고 방금활동에 착수하얏다(김천지국뎐보)

星州에도

다수히침수

경북성주군(星州郡)일대에는십일일부터 나리는비로 십이일새벽두시부터 읍내가옥은 다수히 침수되여 피난민을 만히내엿는데 성주경찰서와 군당국에서는목하경계중이라더라

海州地方의水難

수리조합에서강을막은관계

黃海社堤防으로

朝鮮人、中國人各一名溺死

십일일오후두시경에 화양강(花陽江)범람으로인하야그부근에서 조선인한명과중국인 한명이 빠저죽엇는데 시톄는 아직찻지 못하얏스며 그강은 일본인황해사(黃海社)경영의 수리조합(水利組合)에서강을막은관계로작년이래로 그와가튼 수해를당한다고하야 일반소작인의 비난이 자자하더라(해주지국뎐화)

昨年酷害이든

開城郡에서

금년에는

수해업다

금월 구일오후부터 가는비가나리기 시작하야 십일십일일량일간은 종일폭우를 계속한결과개성군 지파리천(池波里川)의 고려교가교 목동교(高麗橋牧洞橋)등은 권부범람하얏스며 서본뎡의 주교(舟橋)도 범람되얏슴으로 작년홍수에 크게놀래엇든천변주민은 크게공포를늣기며 피난준비를하는등 일시소동이잇섯스나 십일일 석각브터 비가감하야 점점내물도감수되얏스며 십이일아츰부터는 청텬이계속되얏더라(개성)

大田에家屋流失

련일나리는비에 대전천(大田川) 물이 증수되며 장터압 부사리(芙沙里)쪽언덕이 작고문허지기 시작하더니 십이일 오후한시경에는 급격히 증수가되매 동내압까지 물이드러와서 집한채는 문허지고두채는 떠나려갓는데 다행히 인축의사상은 업섯더라(대전)

大邱六洞里浸水

각단데에서구호에노력

련일부터나리는비로인하야경북(慶北)각디방의피해는적지안은데 십일일오권열시부터 십이일 오후까지 나리는비는 매평삼석이두(三石二斗)에 달하야 대구시내는 동운뎡(東雲町)을위시하야 대화뎡(大和町)칠성뎡(七星町)、신뎡(新町)、덕산뎡(德山町) 명치뎡(明治町)달성뎡(達城町)등디는 대개침수가되야 피난민은 학교와로동공제회(勞働共濟會)외 여러곳에 수용하엿스며 용진단(勇進團)로동공제회(勞働共濟會)데사청년회(第四靑年會)등사상단데와 경찰서、소방대등에서는구제반을 조직하여가지고 결사적활동을 하는중인데 시내에 문허진가옥은대화뎡(大和町)두호시장뎡(市場町)두호이며 목하피난민 이백명은 대구공립보통학교내에수용중이더라(대구특파뎐)

慶北各郡

四百餘戶

칠곡면만은

바다가되여

련일나리는 비로 경북일대는수해가막대한데그중영천(永川)은 침수가옥이 이백호이요 칠곡군 칠곡면(漆谷郡漆谷面)은권부 바다로변하엿스며 고령(高靈)에는침수가옥이삼십칠호 청도군청도면시장(淸道郡淸道面市場)에는침수가옥이 이백사십호에 달하엿더라(대구특파원뎐)

防川이危險

군대가경계중

대구시외의방천(防川)은위험함으로군대(軍隊)까지출동하야경계중인데 비만그치면 별일은업겟스나 아직오는중임으로 인심은권권긍긍하는중에잇더라

女子一名溺死

대구덕산뎡에서

십이일오권 일곱시 이십분경에덕산뎡우편국(郵便局)압내물에남녀두사람이떠나려가는것을발견하고 남자는 구원하엿스나 녀자는 그만죽고마럿는데 시톄는곳건지여 수당을 가하엿스되아모효험이업섯다(대구지국뎐)

良才川附近

대곤난

도선이업서서

시흥군신동면양재리(始興郡新東面良才里)는일대광야로 년년히농사에 실패본자람이 극소한중륜년에와서는 련일비로 양재일대에는바다가되고말엇스며그 양재내(良才川)에는칠팔년전에총독부토목과(總督府土木課)의경영으로대단견고하게다리(橋)를노아 일반백성에게 통행의편의를낫든중 작년홍수로 첩첩히떠나가고말어 금년에는 일절통행치못하며 더욱곤난한것은 신동、언주(新東、彦州)량면이라는데 더욱 금번홍수로인하야 매일혼잡을일운다 더라(송파)

大阪에三千戶

침수되엿다

대판뎡천(大阪淀川)의물이넘어시가의 침수가옥이 삼천이백호에달함으로 고긔공병대(高槻工兵隊)에서는 십이일에출동하엿다(대판뎐보)

錦江增水와

淸州水害

百五十戶

전부침수되여

련일오는비는 지난십일일 오후두시경부터 폭우로변하야 그이튼날아츰까지 계속함으로 각처의홍수가 비상하야 청주(淸州)부강(芙江)관내금강(錦江)이수십척이나 증수되여 침수가옥이불소하다하며 오창면(梧倉面)에는 팔결천(八結川)의 증수로교통이 권연두절되엿고 도암제방이 팔결천을향하야 점점파괴되는중인데 목하오십여척 이나되며 강외면평리(江外面坪里)조천(鳥川)부근으로 일동리백오십여호가 권부침수되여 현재오송(五松)방면에 피난중인데 수십년내 희유한 대홍수라더라(청주)

죽을번한

五母子

겨우구해내이엇다

경남합천(慶南陜川)으로흘너나리는 강은홍수로 홍바다를이루엇는데 십이일 새벽두시경에엇던녀자하나는 어린아이네명과 함께강물에 떠서거의 죽게된것을 오전 구시경에 디방유지들이총출동하야 구해내엿더라(합천지국뎐)

裡里平野에도

농작의피해가잇다

전북익산(全北益山)디방은지난칠일오후부터 비가오기 시작하야 동구일밤까지 조금도 쉬일새이업시 쏘다저서 리리(裡里)평야는 물쎄계를이루엇는바 농작물의피해가잇슬듯하다 더라(리리)

宜寧에는

死傷數十

침수백호

파손이십개소

의녕읍(宜寧邑)은수재로인하야 침수백여호에 파손이 십개소이고 사상자수십명을 내엿스며 데방오개소도문허젓다(의녕뎐보)

市內의水害

鍾路、東大門署管內

◇纛島方面 床上浸水家屋一一六九戶、床下浸水屋二〇戶 計一、一八九戶 浸水畓三一〇町、浸水田五八〇町 計八九〇町

◇廣場方面 床上浸水家屋二八九戶 床下浸水家屋一〇八戶 計三九七戶 浸水畓一四町 浸水田一七八町 計一九二町

◇往十里方面 床上浸水家屋三五戶 床下浸水家屋九三戶 計一二八戶 浸水畓五〇町 浸水田三五町 計八〇町

◇淸涼面方面 床上浸水家屋五〇戶 床下浸水家屋六戶 計五六戶 浸水畓五〇町 田三五町

各地交通과通信

大邱、枝川間洪水로

京釜本線이不通

추풍령을떠난대구행차가

중간에서묵어서크게소동

십이일밤에 경부선대구신동(大邱新洞)사이에잇는 지천(枝川)의약일「마일」가량은호우로인하야렬도궤도우홍수로덥혀젓스며 오전다섯시 십오분에추풍령(秋風嶺)을떠나대구행 혼합렬차는 신동(新洞)역을떠나진행중에 가치어 진퇴를못하게 되엿는데 한동안그렬차의승객의 생사조차 몰라서매우놀래엇스나 십삼일오전 열시경에 무사한것이 판명되얏스며 방금감수중임으로 오후 오시경에는복구될듯하더라(십삼일정오착뎐)

開通豫定

모다오늘밤안에된다고

경부선대구지천(大邱枝川)간은 십삼일오후다섯시경에 삼랑진원동(三浪津院洞)은동칠시경에개통될가뎡이며 김천부산간의 뎐신뎐화는불통되얏다(김천지국특뎐)

浦項과大邱、釜山

電信이不通

포항대구(大邱)포항부산(釜山)간방면의 뎐신은련일나리는 비로불통이되엿더라(포항지국뎐보)

慶北鐵道‖경북털도도 이번비로인하야 권부불통되얏더라

堤防決潰

경부선삼랑진(三浪津)원동(院洞)간의처자천(妻子川)수리조합의데방이문허저 털도선로의 토사데방이 오십평이 류실되얏는데 회복의 가망이아즉업더라(십삼일정오착뎐)

全北鐵道‖전라북도 리리(裡里)와 전주(全州)간기타전북 털도도불통되얏더라

京南鐵道‖텬안(天安)과 광천(廣川)간의 경남털도도 권부불통되얏더라

馬山線‖마산선은여러곳이 침수되얏고 또털도뚝이 문허저서 렬차는 방금불통중이며진영(進永)창원(昌原)등디는더욱심하더라(십삼일정오착뎐)

十三日밤부터

개통하도록준비

십삼일오전열시에경성역을떠난 렬차는삼랑진(三浪津)까지운뎐을진행하도록 방금 텰도당국은노력중인데 부산 공무사무소에서는 십삼일밤여덜시에 부산을떠나는봉텬행(奉天行)급행렬차부터 통과식히도록 노력중이더라(십삼일정오착뎐)

院洞三浪津間‖삼랑진원동간의 불통된곳은 응급공사에 착수하는중인바 십삼일오후 칠시반까지에는복구되리라더라(십삼일오후한시착뎐)

慶南鐵道‖마산진주간(馬山晉州間)의경남털도는 권천이불통되얏는데 복구는 아즉망연하더라(십삼일정오착뎐)

慶東鐵道‖대구에서 경주방면으로통하는경동선은여러곳에침수 또는류실되야 방금두절되얏스며지금(십삼일오권열시)복구할 가망이업다더라(대구지국특뎐)

大田、錦山間‖대전금산사이와 대전공주사이의 도로가결괴된곳이 만어서 자동차는불통되엿더라(대전)

黃海鐵道‖황해도 상해광탄(上海廣灘)간의털도가잡기여 교통이 단절되엿스며 인하야상해금산(上海金山)간은 도보로 련락을한다더라

오도가도

못하는乘客

이백여명

경부선 불통으로인하야 오도가도못하게된 려객을 됴사하건대 김천(金泉)에 륙십명이오 대전(大田)에일백오십명에달하며렬도측에서밥을지어먹이는터이다(십삼일정오착뎐)

海州延安間

自働車不通

해주연안(海州延安)간의자동차는도로 침수로인하야 불통되얏스며 연안토성(土城)간도 두절되얏고 해주의서부(西部)자동차도로는 모다침수 되야교통이 권부두절되얏더라(십삼일상오십일시해주뎐화)

兄山江물로

延日에千餘戶

각단데련합으로구제

一般交通全部杜絶

경북포항(慶北浦項)은지난오일부터 나리는비는 쉬칠줄을모르고아직까지 나리는중인데 십이일오전구시경에는 형산강(兄山江)증수가십오척에달하야 연일면(延日面)부근가옥일천여호는 침수가 되엿슴으로 청년회(靑年會)로동조합(勞働組合)포항소방조(浦項消防組)경찰서의각단데에서는 구제키위하야 총출동을하엿는데 일반의교통은 권부두절되엿더라(포항지국뎐보)

下關釜山間

聯絡不通

일본을가랴면

元山을도라야

일본행 승차권은 관부련락선을 탈수업슴으로 방금련락 되지못하며 십삼일밤 렬시에경성역을 떠날부산행 렬차는남으로 삼랑진까지 차표를판다하며 만일 그런데일본으로가랴면 원산(元山)으로 도라가서 십사일 오후두시에 부산에 도착하는 조선우선회사 긔선으로 련락을취하는수밧게업다더라

東京京城間

電信復舊

두절되엿든

뎐신이복구

금번수재로 인하야 경성동경간(京城東京間)의뎐신이두절되엿

(위치를 정하지 못한 단편) 다가십삼일오후부터개통이되엿다더라

天安、廣川線‖텬안광천선(天安廣川線)은십이일아츰부터 각구간(各區間)이침수되야선로(線路)의문허진곳이만흔고로 복구할가망은업슬모양임으로 당분간 운뎐(運轉)을하게될모양이라더라

日本行郵便

가지못하고잇다

경부선 불통으로 일본행(日本行)우편물(郵便物)은 대전(大田)과경성(京城)우편국에서 보관중이오 일본에서오는 우편물은부산(釜山)대구(大邱)두우편국에서 묵히고보관중인데 톄신국(遞信局)과 털도우편국(鐵道郵便局)에서는 계원(係員)을급파하야우편련락에노력중이라더라

南方郵便物

부산에서배로

삼랑진창원(三浪津昌原)간의고장(故障)으로 우편물은 부산에서배편으로 삼천포(三千浦)에 보내는현상이라더라

江華

浸水二百

증수십여척

강화읍시장(江華邑市場)가운데로흘러나가는내스물은증수십여척에달하야 물로차흔곳이 만히문허젓스며 부근가옥은 이백여호가 침수되여 주민는모다고지대(高地帶)로피난을가고인심은 흉흉하다더라(강화)

明月館本支店

식사를데공

팔백명에게

시내명월관본지뎜(明月館本支店)에서는 동서이촌동(東西二村洞)리재민중 팔백명에게십이일아츰밥을데공하엿더라

서울靑年會

림시로

수해구제부를두고활동

서울청년회에서는 사내에서 동정금 모집할것을경찰서에 교섭중이라함은 이미보도 하얏거니와 십삼일에는 위선 다섯대로구제대(救濟隊)를 조직하야 각리재디로 로사람들에게구제미(救濟米)를 ... 계속할터이라더라

衡平社員

同情箱을노코

물보러오는사람에게

푼푼이동정금을모아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중앙총본부에서는 (십삼일에) 한강인도교어구에 리재민동정함(罹災民同情箱)을만들어노코 물구경나오는 수만명군중에게、동정을구한결과 한푼두푼모힌돈이 삼십원오십사전에 달하엿는데 십삼일에도 여전히계속하야 동정을구하엿다더라

仁川水害救隊

五團體發起로組織

인천(仁川)부근금곡리(金谷里)송림(松林、松峴)화평리(花平里)네동리의수해는 송현리매립공사로 인하야 더욱위태하든중 인천소년척후군(仁川少年斥候軍)을비롯하야 률목청년회(栗木靑年會)또는기타 각청년단데의활동으로 물길을 터노키때문에얼마큼 피해가적엇다는데 소년척후군보에 의하면 침수가옥이 륙십팔호중파손가옥 이십이호인데 동리별로보면 아래와가다

松林里	浸水十四戶	中破損二戶
金谷里	同 十六戶	—
松峴里	同 二十二戶	中破損十戶
花平里	同 十六戶	—
合計	同 六十八戶	中破損十二戶

이상네동리는 대부분 빈민이만히사는 동리로서 수십생활 가운데도 더욱이 살길이업시 중도에방황하는 동포가만히 잇슴으로 이리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야 오권다섯단데의 발긔로십이일 오권열시부터 외리(外里)인천 로동총동맹회관에 림시구조 발긔회를열고 권긔다섯단데중으로 대표이인식을 선출하야 인천수해구조대(仁川水害救濟隊)를 조직하야가지고 방금동정금모집에 착수하는중이라는데 각단데중으로 선발된 대표자씨명은 좌긔와 갓더라(인천)

▲仁川勞働總同盟 金演寬、[illegible] ▲[illegible] 青年會 [illegible] ▲(財務及書記兼務)李晶文▲栗[illegible]

女子基督靑年

女醫劉英俊氏

병든자를 구호갓다

태화녀자학관(泰和女子學館)녀의 류영준(劉英俊)씨와 긔독녀자청년회(基督女靑)의 김영순(金英順)씨외일인과 본사부인긔자 최은희(崔恩喜)씨는 피난민중병자를구조코저 약을준비하여가지고 십삼일오후 이촌동방면(二村洞方面)으로나갓스며 십사일부터는 뚝섬방면(纛島方面)으로나가리라더라

教習마친新巡査

暴行하고留置場에

술이취하야뎐당국에가서

녀학생의손목을잡고면직

십이일저녁 여덜시경에 시내당주동(唐珠洞)사번디압야주개큰길에서 정복을입은 순사한명과 그근처주민사이에 일대 싸홈이 이러나순사가

뭇사람의 매를마진사실

이잇는데 이제그진상을 들은즉 권긔당주동 사번디에는 뎐당국을경영하는 조중식(趙重植)씨가사는터인바 해질녁씀 되여술취한 순사한명이 엇던자를다리고와서·주사(注射)를 주어달라고 횡설수설 함으로조씨는 병원을가리키어 줄것이니 나오라하얏스나 그순사는 도로혀안으로향하야 드녀가고자 하다가마침밧갓의수선한소리를듯고나왓든조씨의장녀 경성녀자 보통학교생도신희(辛姬)(一五)의팔목을잡어비틀며서툰朝鮮말로『야로가』하야 신희를놉시괴롭게굴자마츰 그곳을지나던 엇던사람이 이를보고순사를 쇠러내여그비행을 질책하자 순사는도로혀긔승을떠름으로이에격앙한군중이매질을 하려다가 종로서에 [illegible]하엿는바 싸홈나든현장에서 데리러온 순사에게 정복과정모를 빼앗기는 광경은한층 가소로웟스며 이순사는권남제주도 추자면 신양리(全南濟州島楸子面新陽里)삼백팔십삼번디 출생으로 경성에와서 순사교습소(巡查敎習所)에 드러넉달동안 교습을바든후 십이일에비로소 졸업을 어더개성(開城)경찰서근무가되여 떠나려하든 리긔엽(李起燁)(三○)이라더라

今日에免職

도로혀다행

巡查敎習所長謝過

별항보도에 대하야 순사교습소등정(藤井)소장은 말하되『실로붓그럽기 짝이업습니다 그자는 교습중에도 항상불량한편이 만히잇서 여러번 처분을하랴하엿든터로 민중과직접관계를 가지고접촉하기전에 이런일이 발생된것은 도로혀다행하나 일반민중에게 다행한것일것갓습니다 이자는 오늘아침에 횡산(橫山)부장을 종로서에 보내서 데려왓는데 금십삼일부터 면직식히기로되엿습니다』운운

京城府의無能으로

學校費評議員動搖

리완용후학교비감액문데로

항의하고안드르면모다사직

오래동안 송강중이던리완용(李完用)후학교비문데는 마츰내부에서개인에게 굴종되여 결반을감하여주게 되엿다함은 사실발생당시에 보도하엿거니와 그것도역시 학교평의원(學校評議員)에게대하야는 일언반사도업시 부에서 독단뎍으로 처리하엿슴에대하야 평의원사이에 부의무능력을 비난한다는것보다 평의회자톄의 톄면상도커니 그대로묵과할수업다하야 문데가 되여나오던중 지난십이일오후두시에 수송동공립보통학교(壽松洞公立普通學校) 안에서회의를열고그대책에 대한상의가 잇슨후 부당국에항의(抗議)를데출하야 만약드러주지 안는경우에는단연히평의원권부가 총사직(總辭職)을 행하기로 결뎡하고 교섭위원으로박준호(朴準鎬)씨외수인을선뎡하야교섭케하엿다더라

五十老婆自殺

비오는중에

시내북미창뎡(北米倉町)오십팔번디박선익(朴善益)의모정성녀(鄭姓女)(五三)는십일일오후여섯시경에비를무릅쓰고 시내남산(南山)밋련만지(蓮滿池)에 몸을던저서 자살하엿다는데 그원인은 생활곤난이라더라

花園町에

棍棒强盜

범인은

아즉도못잡엇다

십삼일오권 한시경에 시내화원뎡(花園町)국지뎐당국(菊池典當局)에 곤봉(棍棒)을가진일인(日人)강도두명이들어와주인을

종명자

▲양주군구리면북동리(楊州郡九里面北洞里) 일백사번디에사는 권순사 김평산(前巡查金平山)(二○)은 십이일 오후세시경에 돈은 한푼도업시 시내 명치뎡이뎡목(明治町二丁目)오십칠번디서양료리옥「비인카후예」에 드러가서 사원삼십칠전어치를 먹고난후로 이집사람들에게 줄언을하다가 도망을 치려는것을▲누근순사가 데포하야 본뎡서에인치하고 방금취됴중이라고▲순사교습소에서 나오든날로 폭행한새순사와 대조하야 할새지면 신구경쟁을하는모양인가

상용문 누에고치파는방법 (一)

—요사이이러나는문데에비추어—

東京에서 李晟煥

고치가 상품(商品)으로서 시장(市場)에 나오게 될때에 이것을 양잠가(養蠶家)편으로보면 생산품(生産品)이 되는 것이오 다시 제사가(製絲家)편으로보면 원료품(原料品)이 되는것이외다

그리하야 생산품을 판매(販賣)하는처디에 서고잇는 양잠가로서는 이것을 리(利)롭게판매하며 판매치 못함에의하야 그해의 양잠업경영상(養蠶業經營上) 성패득실(成敗得失)의 여하가 판결되는것이외다

온봄동안 혹은 온가을동안을 먹지못하고 잠못자고 피와땀을 흘려가면서 애써누에치기에 악전고투(惡戰苦鬪)한결과 이마당에이르러서 비로소 승전(勝戰)의개선가(凱旋歌)를 노래하게될가 그러치아니하면 패부(敗北)의 비명곡(悲鳴曲)을 아리우게될가 하는가름이나게되는판이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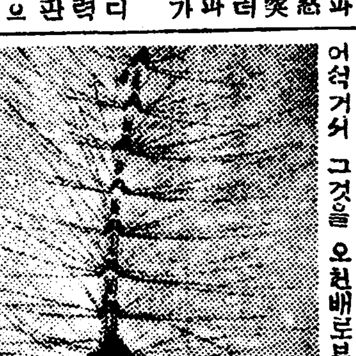
제아무리 훌륭한 사육(飼育)으로 아름다운 고치를풍부하게 수확(收穫)하엿다하더라도 이것이생산품으로 사장에 나아가서 리로운값을 밧지못하는때는 지나간 모든로력은 하로 아츰볼거품으로도라가고 말것이니 이는마치 항해하는 사람이 천파만파(千波萬波)의 노도광풍(怒濤狂風)을 애써서 돌파(突破)는 하고도 마즈막에이르러서 파선(破船)하고 마는것과 마찬가지임니다

그럼으로 생산품을 파는처디의 양잠가는 양잠중의 만반로력은 물론이어니와 더욱최후 결판마당인 판매시장에서 승리를 엇게되도록 애쓸것은 당연한일이라함니다

여름사람을 피롭게하는 네가지버레 (三)

모긔

모긔는 그와가티 무서운병을 사람에게 전할뿐아니라 작업능률(作業能率)을 방해하고 로동하는시간을 감케하나니 우리조선에서 모긔가발생하기 시작하는 륙월하순부터 십월 중순까지 넉달(一족일백이십일동안 모긔로인하야 새앗긴근로시간(勤勞時間)을 계산하야 보면 한집에서 다만한사람이 밤일을한다할지라도 모긔로말미아마 하로한시간식 손해를 당할지니 사백만호수의 일백이십배즉 사억팔천만시간의 큰손해를 보게됨니다 모긔는한마리가 한녀름에 오십으로일백오십마리가량의 알을나케되나니 이것을업시하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모긔가가장반히 발생하는 개울 수채 두엄 변소 가튼곳에 석유를 색려서 알을부화치 못하게할것이올시다 그러고 결단코 먹다남은 음식을 수채에함부로 버리거나 더러운 물을여긔저긔버려서 썩이습하지 안토록주의할것이올시다 또는 모긔의해적생물(害敵生物)을리용하야 모긔를잡게되나니 파리의 일종인 『리스베』는 줄기온데서 모긔알이새로히 부화된것을 잡어먹고 어미자라서 성충(成蟲)이 된것은 잠자리 벌 거미가잡어먹읍니다 그밧게 제비 박쥐가튼것도 모긔를 잡어먹는것이올시다 그러나 가장철저하게 모긔를 구제(驅除)하는방법은 우에긔록한 바와가티 모긔가발생하는곳을 철폐할것입니다 경성평양가튼 도회디에서는 수채와 변소의설비를 완전히할것이요 석유를사용하야 모긔의알을 죽이는것도 매우조흔방법이지마는 그우에 『싸나마』 살충제(殺蟲劑)를 사용함이 더욱좃습니다 이약은 석탄산(石炭酸)삼두칠승오합을 남비에 붓고 섭씨(攝氏)백도의 온도를 만들어 거긔송진을 파히 엉기지안토록 풀어섞거서 그것을 오천배로부터 만배가량을 타서사용케 하나니 이것은 매우독한것인고로 비롬이 고여그것이썩어서 모긔가 발생하는 구렁이가튼데는 붕산(硼酸)한혼도에 물닷말을 부어서 잘풀어가지고 고르른 색릴것이올시다 모긔가 날어단이는 범위는 오십간으로부터 백간까지 그사이에 지나지못하고 극히멀리간다하여도 반마일에 더가지 못하는터인즉 동리동리마다 단결하야 구제(驅除)에 로력하면 넉넉히 어려울것도업다 하겟습니다 (쯧)



(사진은확대한모긔의촉각)

◇우미관의 독자 우대권은 란외에◇

아이스크림만드는법 (6)

파이넬

향료(香料)를넣코 『아이스크림』만들라면

◇분량 우유한홉 밀가루차수가락으로하나 설당석량중 계란두개 소금한줌 크림세홉 파이넬큰수꺼락으로하나

남비에 밀가루와 설당 소금 계란을넣코 잘혼후에 천천히 우유를부으면서 저어서 십오분동안 중탕을하야 체에걸러 시켜가지고 크림과향료를 석거 『아이스크림』기계에너코 돌릴것이올시다

讀者文藝

苦海

安粟周

속임과殺戮으로 엉키인이世上에
그래도慰安의 자리를차지라고
온갓窮想과 모든呻吟을 거듭하야도
具體의明案은 影跡조차업서라
삶에限이잇는 風前의 燈火
가튼우리人生 쇠림과
蛇蝎가튼制度미테서
망살입도만하
鐵柵中에가치인 우리는 살아도죽음과가티라
그러면弔喪을 바더야옳을가
아니그러면온갓咀呪의制度를
猛火中에던지고
罪惡中에잠기인모든森羅萬象을다부시어바릴가

쏫

鄭順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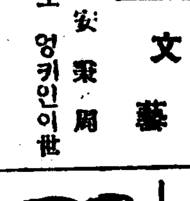
사랑이어詩人의사랑이어!
사랑은너를사랑한다 自然의化粧인
그러나 진정으로는아려주지
못한다
그커구편내보다나흐니올그릇다하고
흙빗보다고흐니아름답다한詩人이여
오직피눈물로눈물만흘린이여
떨룸한이다
참의향내 참의빗을
詩人의사랑이어!自然의作粧인쏫이어!

나는감니다

南村

나는감니다
감니다! 감니다! 나는감니다
기다리다못하야 나는감니다
일은새벽바람에 흩날려
고요히춤추는 나무닙들과
아름다운아츰의 모든경치를
내여버리고 나는감니다
오신다든그대가 아니오시니
섭섭한가슴을 부여안고서
힘업는거름으로 나는감니다
—一九二五、五、二八—

락화 落花



봄바람번역

一三四

그간얄핀 처량한 노래소리에 백수는듯아? 멀리서나나갓가히서나나 마치엉속에서 나는것갓다 하야 이것은귀가그러나보다 지금먹은술은 조키는하나 이상하게 머리를마추는걸 아귀가우는것이다 한대피우면낫겟지』하고 중얼거리며 석냥을그어서 한대피어물은즉 들리든 노래소리는 들리지안케되엿다

먼저낫잠자든 버드나무 미트로가족 뱌아미에서 수선하고잇던사람도 어대로갓는지 업섯다 하늘은 씨슨듯이 개엿스나 여긔저긔풀숩헤는 안개와 가튼것이자욱하야 자긔의 몸까지 싸고도는듯 하엿다 백수는이것을보고 『아이런곳에 오래잇다가는 병이생기겟다 아마인제는 차차로 무슨불을 시작할터이닛가 잠이 안오더라도 자는데하고 잇서보자』하고 집으로향하라한즉 머리는점점 묵지근하야 마치 무슨쇠몽치를 이는것가탓다 『아 정말술이 머리에 올랏나보다 엇잿든 귀가울던것도그치고 노래소리도 들리지안는다마는 내가여긔서 병이낫다가는 대탈이다』하고 천천이거름을옴길때에 강커편으로서 언뜻 백수의눈에 뛰이는것은 몽롱한안개속에 옹크리고잇는 사람의 거림자이엇다 이것이사람이냐 독갑이냐 만하얀물건이 오는듯도 하고가는듯도하고 가는듯도하고 오는듯도하엿다 가거나 오거나 무슨 발이잇서서 것는것도아니오 다만흔들흔들 움즉일뿐이엇다 세상에 유령이라고하는것은 바야흐로이것인듯하엿다

『아 귀가울든것은그첫스나 그대신으로 이번에는 눈이뒤집히나보다 독갑이를보다니 멍텅구리가태서 말도할수업네』

이러케 중얼거리고 눈을 씻고 다시보즉 자긔의눈이 잘못보히는것이아니오 확실히 흰옷을입은것가튼것이 언덕에 배회하고잇섯다 또차차가서보흘어볼가하고 생각하나 장놀이저하야 그도할수업스며 그것이 대데무엇인지 똑똑히 보라하나 망망한안개속에 잇슴으로 똑똑히볼수도업섯다

백수는 이것을 이상히역이며 바라보다가 문득 이를방아집에 독갑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잇든것을 생각하엿다 『흥 이것이 소문난 그유령인가보다 유령별무슨까닭업시 나올리가업다 지언정 까닭업시 나올리가업다 무슨까닭으로 나온유령인가 알앗다 이것은이악한놈이 종종낫분일을하는고로 아못조록 이근처사람들이 왕래를 하지못하게 하기위하야 이런짓을하야 사람을 겁내게하고 독갑이가나온다는소문을 퍼트린것이다 오늘저녁에도 유령이 나왓슬제는 무슨 비밀한활극을 연습할것이다 앗가신호하든것도 또한 이까닭인가보다 오냐 내가그활극을구경하리라』 이러케생각하고 백수는 머리가묵지근한것도 불구하고 다시집으로 들어갓다 만일불방아집을 이토록위험한곳이라 하면 백수는 단신으로서 흉굴로들어가는세음이엇다 어 무슨까닭으로 일업는행인을 재우는가하고 생각하면 백수의 월신도 또한위태하다 할것이다 그러타 물방아집은 실로흉굴이다 이속에들어가는 백수의 금일이 위태한것은 물론이나 그는다 이위래한것은 물론이나 그는 다만정탐에종사하야 구사일생으로살아난일이 종종이섯슴으로 위험한줄을보고 무서워할줄을 몰랏섯다 그뿐아니라 그는 륙련발의권총과 썩날카로운 단검을품속에품엇스며 또는 어둠뼈의준비로 석냥과초까지도 주머니에너가지고잇섯다 다만 마음에 종걸리는것은 녀편네에게 사서먹은그술이 알수업시 노흡범하야 다른때와가티 심신이 상쾌하지못한것과 밤마다 선생을맛나서 그날일을 보고하기로한 그약속을 직히지못하게된것이엇스나 이러한일에 락담할배가 아닌고로 용긔를 내여가지고 문을두다리엇다 하죽녀편네는 문으로나와서 『아 마츰잘왓소 지금문을잠글시간이닛가』한다

『네어서잡그는것이 조켓지오 저긔언덕에 무서운유령이 나다님데다』하고 백수는 짐짓무서워하는테하엿다

이에녀편네는 백수를 경멸히 역이는듯이 『무얼사내가 아마남들의 소문을듯고 유령이나오려니하고잇섯스닛가 그런농부가 헛말을들어 이는것을 유령으로본것이지』

『아 흰말을먹여요 나는유령을보고 줄마르를질로 도망하여왓는데 그러타하면 안심이올시다 아공연히 가슴이떨켜하엿군 어듸곳자볼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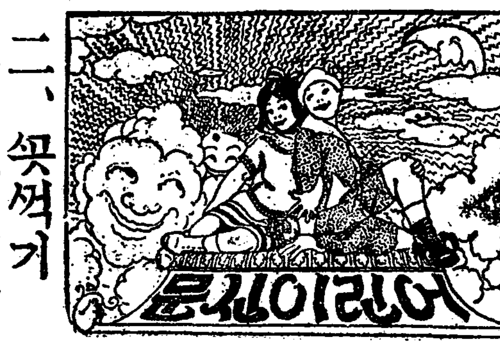
『침대는업고 부엌에부냉들 스닛가 단묘라도펴고자지』하고 녀편네는 초불을들고 압서서 인도하엿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十三日 正午 七二、五
◇比較 十二日 最高 七八、三
◇日出前五時二三分 晝間 一四時
◇日入後七時五五分 夜間 九時一八
◇今日은 佛蘭西祭日

명텅구리 자작자급 (28)

감개무량

(一) 멍텅구리가 옥매오는것을보고 (二) 창피한생각이나서 외면을하고도 (三) 참다못하야 소리를질넛나 (四) 그러나참아또처가지못하고 감개무량



二、꼿석기

홍순이는 학교선생님께 갓다드리려고 풀밧에가서 어엽븐꼿을 석거모앗습니다。

파랑꼿 노랑꼿 분홍꼿 가지각색 꼿을 모아서 묵거들고

『이것을 선생님께갓다 드리면 녀선생님이조와하시겟지……』하고 미리부터깁버하면서 뛰여갓습니다

× ×

드리니까 선생님이 바드시더니 얼골을 쪙그리시면서 『네가이꼿을석글 때에 이어엽분꼿들이 아야 아야 하고우는 소리를 듯지못하엿느냐…… 꼿은 조치만 그 귀여운꼿을 위할줄모르고 뚝뚝 석거오는 착하지못한 아이안테는 아모것도 밧지안켓다 도로가저가거라』

홍순이는 속으로 잘못햇다고 생각하섯습니다。 엿스나 이왕 석근것을 엇지할수 업서서 그냥 손에 쥐인채로 울엇습니다。

義務貯金 五厘引下

取扱은漢銀이最高

現在總督府所屬各官廳官吏의義務貯金을取扱하는銀行에서는從來利率二錢二厘를向者預金利率引下時에五厘로引下하야現在一錢七厘로되얏슴으로金融組合과의利率關係로此預金이金融組合에移轉될傾向이無치안슴가하는데原來此官吏의義務貯金의取扱由來는舊韓國時代에는第一銀行支店에서取扱하다가韓國銀行으로부터合邦後에는朝鮮銀行이取扱하든것을現漢銀頭取韓相龍氏가當時의鮮銀總裁市原氏와度支部長官荒木氏에交涉한結果此를鮮銀의手로移하야普通地場銀行에서取扱하게되얏는後今日에는

其總額이約一百五十萬圓에不下하리라하는바利率도鮮銀에서取扱할當時에一錢七厘이든것을地場銀行이引受할時에一錢八厘로하야其後數次引上하얏다가今回一錢七厘의現在率로되얏는데此預金全額의約七八割은漢城銀行에서取扱하고其餘는朝鮮商業銀行에서取扱하는現狀인데前記와如히金融組合과의關係에對하야는元來今回의利下時에도將來金融組合의利下를豫想한바도잇고現在로는特別한利勵은無하纔입으로此의多數取扱者인漢銀이나商銀에서는아즉은別로對策을必要치안는것갓더라

對日手形交換比

枚數十六分之一 金額八十分之一

上半期全朝鮮手形交換高는枚數百一萬七千七百七十七枚金額四億八千二百六十一萬三千二百六十一圓인데日本의上半期交換高는枚數一千六百十一萬一千六百十八枚金額三百九十五億一千六十三萬七千百十圓으로朝鮮은日本에比하야枚數는約十六分의一金額은實로八十分의一로商取引의差異가甚한것을窺知할수잇는데詳細는如左하더라

	枚數	金額 (單位千圓)
本年上半期		
朝鮮	一、〇一七、七七	四八二、六一三
日本	一六、一一一、六一八	三九、五一〇、六三七
昨年上半期		
朝鮮	一、〇五一、一〇	四八四、五六八
日本	一七、一五〇、七六五	四〇、九二〇、〇三

手形交換增加

前週中(自七月六日至七月十一

	枚數	金額
約束手形	一、二七	六三二
政府預金小切手	七七五	一、三六五
郵便爲替證書	四、〇五一	一、四九九
公債貸券同利札	一〇	三
雜證票	四五八	一、〇〇一
合計	二〇、三三三	九、五一

	證書種類	枚數	金額
小切手		一二、三五五	四、六五〇
送金爲替手形		四八八	四四七

七月上旬까지 米移出四百四萬石

粟輸入累計百四十萬石

總督府財務局稅關課調查에依한七月上旬의朝鮮米移出高는六萬五千二百六石으로昨年十一月부터의累計는四百三萬六千百十石으로昨年의七月末現在四百二十一萬六千五百七十九石에比하야僅히十七萬九千七百六十九石의減少에不過하고又代用食인外米粟의輸入에就하야보면前者는二萬六千四百二十七石

累計는五十七萬二千二百八十石으로前年七月末現在의百二十四萬五百九十二石에比하야二十三萬一千四百八十八石의激增을示하얏고粟에在하야는二萬六千六百九十一石으로前年七月末의百十六萬九千九百十八石에比하야二十四萬五千三石의大激增을示하얏더라

綿絲暴落

買氣一服

本日米棉五十錢安을入한阪地三品은大引甚限三百三十三圓四十錢인四圓七十錢安先物二百十八圓五十錢인五圓四十錢安의大暴落을演하야九月限과如한은十二圓安을示하는데此는米棉의逆日安、賣屋의策動、硬派의利喰急等에因한것으로買氣一服狀態인데當地의三品은將次三百二十圓臺를衝코자하더라

市俄古小麥暴騰

鈴木商店入電에依하면市俄古小麥은當限五十四仙二分一厘、先限五十八仙八分六十二限五十一仙八分의二로前電에比하야期近八仙先物六仙의暴騰을演하얏는데此는增收豫想의春蒔小麥이天候不順으로減收觀念이有함과冬蒔의不作에基한것으로期近이特히高함은

受渡期

를控한仕手關係에基한것인데本年度의米國小麥收穫豫想은六月九日의六億六千百萬尖셀에比하야七月一日發表의豫想은六億八千萬尖셀內에冬蒔는四億四百萬尖셀春蒔는二億七千六百萬尖셀로千九百萬尖셀의增收豫想인데前調에比하야春蒔는增加되고冬蒔는減少되얏더라

商大合同進捗

來週에重役會

大銀商銀의合同에對한鮮銀及總督府態度는旣히決定하고基礎條件의査定도終了하야目下該條件을雙方銀行當事者에提示交涉中인데今週中으로는大體의交涉을終하고來週早早重役會를開하게되리라더라

鮮銀金爲替

取引制限

(靑島電) 朝鮮銀行은中國의爲替投機를抑壓할目的으로天津支店에對하야金爲替取引을制限하엿는데其目的을一層徹底히하기爲하야靑島及濟南兩支店에도預金者以外의爲替取引을禁止하엿더라

京城側出席員

商議聯合會

來二十三日부터三日間元山에서開催할第八回朝鮮商業會議所聯合大會에對하야京城會議所에서는西崎源太郎陣內茂吉의兩評議員이出席하기로決定하얏더라

日窒創立事務所

鍾路商銀樓上에

日本窒素肥料會社에서는北鮮水力發電氣의認可로因하야同社野口氏는今回鍾路商銀支店樓上에創立事務所를設하고事業着手에至하리라더라

京城穀物移轉

再次陳情

京城穀物組合移轉에就하야는總監의歸京을待하야更히陳情할터인데十三日今村組合長이組合을代表하야總督府로總監을訪問하얏더라

新繭去來狀況

(殖産局入電)

▲龜城十二日發▲七月八日乾繭一石에白繭交雜種最高百七圓最低九十五圓總取引數量四十七石 ▲同十一日發▲七月九日乾繭一石에白繭交雜種最高百七圓最低六十五圓買價九十三圓總取引數量二十四石 ▲同十二日發▲七月十日乾繭一石에白繭交雜種最高百七圓最低六十六圓買價九十五圓總取引數量六十八石 ▲熙川十一日發▲七月十日乾繭一石에白繭交雜種最高百六圓最低六十六圓買價八十六圓總取引數量五十石 ▲成川十二日發▲七月十日白繭交雜種乾繭一石에最高百三圓最低六十圓買價八十四圓總取引數量三十一石 ▲成川十二日發▲七月十一日白繭交雜種乾繭一石에最高九十四圓最低六十圓買價八十圓總取引數量九十六石

한나그려연으로第一期米의步入과財界의不振또는代金銀行等無非軟材가續出한다할지라도手當米의缺乏이一大難關이며더구나期近의步調로當然의買價를…으로來月의十限은更히實價를可能이有하나現下三期는到底히賣하수업다고

快觀은中旬後

現下各地市場은上纔下續의商勢로順氣를隨하는軟軍과正米의實勢를追從하는硬軍이相際하야可謂進退維谷의形勢를呈하는中이며阪地의情勢로보아서는頭重氣分의感이多하나朝鮮의事情은過去의日本移出이殆多하엿슴으로産地及集散市場을不問하고在米가더욱保拒되야阪地와의同鞘라도無妨하다는探索아래에地場硬派는天氣의如何임을不拘하고極力買進하는狀樣인데果然八九十丁으로縮鞘한此際에오히려當然의步調로等閑視하야新進軟派의賣物이無함을보면아즉도縮鞘할可能이有한듯하다그런데阪軟仁硬의逆鞘을見만다하면結局兩方이서로不利에歸하고말이라는바實로阪地低鞘를欲할때에는止態의高價는演하지못할것이오또는當地의情勢로보아無謀한賣를許키難함으로何如間中旬後가안이면快觀을못하지못하리라고

仁川期米 十三日

現實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當限	—	—
中限	三九、九〇	—
先限	三九、九〇	[illegible]

前場底堅

再昨後場阪地四十圓十二錢止와共히三十九圓二十九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一休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四十圓四十八錢인三十六丁의突高를伴하고三十九圓三十八錢인僅히九丁高價로場을始한後阪地五十錢으로小高함을接하고二節六十錢으로跳返하더니阪地四節四十六錢의小落을受하야四節四十五錢으로反落하엿스나當地場의買占勢는依然硬張하야阪地四十錢三十錢臺로低落함을不拘하고五十錢의五番同事인자못堅實한步調를作하다가結局阪止四十錢의報와相俟하야六十三錢으로突飛하야頑强히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二十五丁이며阪仁의鞘는七十七丁인稀有의縮少를示하더라

實勢로는難買

日本及朝鮮地方을互하야天候는餘議업시好順을呈하야豊作의兆를示함으로阪地市場은從來强氣筋이不知不識間에軟化하는傾向이多하며따러서局勢도頭重의感을呈하는現樣이나潮先及久保筋은依然買方針을鞏固히하야最後의勝利를獎하려하는中이라한따果然正米의現狀이如何한가?本年은商人의手中에拘束된實米가無하얏은事實인同時에滊家의買新關係로一時는産地의在米가痲富하다는商勝이有하엿스나其實滊家에도『제로』의狀態를呈하야二重凶作의本色을露出하게되엿다

米豆餘話

▲連三日暴湊하든霖雨는昨休日아츰에야비로소晴天이어섯다各地를亘하야罹災民이不少하지만은大體觀으로는治足한甘雨라하겟다▲幾日雨不足의歎은今日의豊作謳歌로突變한同時에相場에도그敬意를表하는듯一段低落을告하엿다▲그러나天翁의威權을對峙하는八十八王의威力도또한宏壯하야容易히低價를許치안는氣構인걸▲果然實現의正米가昨年凶作의行動을本年夏枯期에入하야實現하게될것으로本年의作의時勢는明年에演出하게될것이다▲그럼으로昨今의順氣를跳하고無謀히賣樂할수업슬것은事實이며더구나空賣가多한期近의賣物을如何히維持할가하는것이焦點의問題가아닌가?▲時日을經할사록稍漸稍漸히減退되여가는各地의在米狀態를보면手當米의準備가참으로難한즉一時煎熬가不無할…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九、三五
二節	四〇、一〇	—	三九、三五
三節	四〇、一〇	—	三九、三五
四節	四〇、一〇	—	三九、四五
五節	—	—	三九、四五
六節	—	—	三九、四五
七節	四〇、一〇	—	三九、四五
八節	四〇、一〇	—	三九、四五
九節	四〇、〇〇	—	三九、四五
十節	四〇、〇〇	—	三九、六三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四〇、一〇	四〇、一〇	三九、三五
二節	四〇、一〇	四〇、一〇	三九、三五
三節	—	—	三九、七五
四節	—	四〇、一〇	三九、八〇

後場保合

前場에强硬히止한機先大阪後寄가三十三錢으로七丁低報에買物薄으로六十錢인前止보다三丁低에寄한後大阪引締에六十五錢으로向上하고七十錢에引締하얏고八十一錢으로昂進되엇섯스나大阪五節小綴에買物不續하야七十五錢으로下抑後大阪止二十五錢으로低移에結局六十錢에大引되엇더라

各限俵合

	當限	中限	先限
取組高	四八〇	二三〇	一六〇
出來高	六〇〇	四三〇〇	九三〇〇
帳入價	四〇〇	四〇〇	一四
合計		九六〇〇	
累計		五二四〇〇	

仁川正米小高

同	玄米三等	四〇、一〇
	三等	三九、六〇
無檢查米		三七、〇〇
一等精白米		四四、五〇
在米正租		一二〇厘
改良正租		一二二厘

大阪期米

	前場	止
當	四〇、二一	
中	四〇、九〇	四〇、八〇
一節	四〇、六六	四〇、三〇

仁取買人氣

今朝는仁新이保價로三十二圓八十錢에九十의商內가잇섯슬뿐이며仁取는비록手合은업섯스나大引에仁取는八十八圓五十錢의買際으로强含氣勢이엇는바過急히昂進되엿에도不拘하고出來高樂觀의强材下에依然買人氣이엇더라

賣方追證

後場立會外

賣方은追證을納入하얏더라

京取伸悩

京取는保價로二十圓八十錢에始한後代引減의好感等으로一段二十一圓丁을오래간만에付하얏섯스나阪株釘着을보고는高價買가不續하는一面高價賣는依然하야다시二十圓九十錢으로下하야伸惱이엇더라

大新鍾新釘着

今朝阪電은固着不動임으로當地仕手도全然見送하야大新이八十一圓四十錢初付三十錢大引이엇고鍾新에百二十一圓三十錢一步로各小口가잇서釘着不變이엇다

…의大暴落

米棉五十錢低인데다가綿系는大暴落으로當地人氣는더욱不振이엇섯는데中國에對한棉系輸出好況豫想이던것이米國의着手로絕望되얏다든說이엇섯더라

前場諸株步調

▲京取 二八、一〇〇—二〇、九〇—
▲仁新 三三、〇〇—

安取暴騰 十圓丁

取引所改造、銀川來高旺盛等으로安取興地高를따러當地도一部仕手의猛買로前週에九圓丁에上하고十圓說이잇든바果然今朝에初付된後漸進되어드되어十圓丁을示하고大引은九圓五十錢買際이엇는바目先은興地가十圓突破로猛進일것가트면當地도同一

前場安取高

(土曜終價와前場終價比較)

京取	一〇高	大新 保價
安取	一〇〇高	鍾新 保價
仁新	保價	

京取短期取引 初付 大引 高低

株名		初付	大引	高低
京取	前	二〇八〇	二〇九〇	
	後	二〇九〇	二〇八〇	
仁取	前	八八〇〇	八八〇〇	
	後	八八五〇		
仁新	前	三二八〇	三二八〇	
安取	後		一〇〇〇	
鍾新	前	一二一三〇		
大新	後	八一四〇	八一三〇	

株式 十三日

各地期米 前場 後場

大阪氣配 二六錢

後場仁取高

京取	一〇高	安取 三〇低
仁取	一〇〇高	大新 一〇高
仁新	二〇高	鍾新 保價

前場穀類媒介

田中의株介百五十二로最後付近이七圓八十錢에大引되엇다

阪株保、地株强

仁取八十九圓

後場도阪付가大阪은同事鍾新은十錢高로不變에當地는大新이十錢高로八十一圓四十錢에付하고鍾新이同事로百二十一圓三十錢에二本이잇섯슬뿐으로見送이엇다가大引에大新이又復同事로四十錢이엇스며京取는初付不成이나後場에는八十八圓七十錢에付한二十一圓丁에一步활위으로强開하야고仁取는前場에高唱이며나後場에는八十八圓으로九圓丁에躍進이엇스며仁新도三十三圓丁에上하야九圓七十錢에付하야少弛이엇스나依然賣物無로不押이엇더라

後場諸株步調

▲京取 二〇〇—
▲仁取 八八〇〇—八八〇—九〇〇—
▲仁新 三三〇〇—三三〇—
▲安取 九〇〇—
▲鍾新 一二一三〇—
▲大新 八一四〇—八一四〇—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代引	算定	日步
京取	二六四	一九〇	二〇〇	二〇
仁取	二〇	一〇	八〇〇	三
仁新	八〇〇 不足	二〇〇	三〇〇 逆	
安取	四〇〇	九〇	一〇〇〇	一
鍾新	四〇〇	九〇	一〇〇〇	五
大新	一三〇〇 不足	五〇	八〇〇 逆	

出來高

▲長期	累計	六三五〇
▲短期	累計	五〇八〇〇

大阪短期株式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鍾新	一二二五〇	一二二五〇	一二二五〇	未着
大新	八一五〇	八一五〇	八一五〇	未着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八一五〇—八一五〇—
▲前場鍾新 一二二五〇—
▲後場大新 八一五〇—
▲後場鍾新 一二二五〇—

海外經濟 十三日

倫敦十一日發 倫敦銀塊 三一片 英米爲替 四弗八六仙八分一 不變
紐育十一日發 米棉 五十錢低
桑港十一日發 印棉
孟買十一日發 二二五部四分三 三十錢低
아나콘다株 四一弗 八分一高
紐育銀塊 大九仙八分三 不變
先物 八分三 八十八

朝鮮銀行券

發行高 八〇、三二五
正貨準備 三三、五五
保證準備 四六、七七

京城穀物市勢 (十三日)

白米		四五〇〇
合格		三九〇〇
地摺		三九五〇
大豆	京畿	一四〇〇
	黃海	一四五〇
綠豆		一三〇〇

慶山郡慘害

萬石洞强盜

優良商品紹介

大阪電報通信社

純良香油

白椿

純粹의椿油를 精製脫色한 香油

大阪心齋橋 本家 をぐらや

歐米品보다도 優越한

高尙하고美麗한 クラブ白粉 백분

열골이거칠지안는

クラブ石鹸

구라부비누

天下의皮膚美를增하는조흔비누

數學界의黎明·二大名著出함

最新刊

小學校算術科に於ける實驗實測

廣島高等師範學校附屬中學校數學研究會著

眞個的數學敎授即實驗實測은 近時數學敎授에在한新紀元이오。이實로數學敎授革新에在한大勢이라。本書는實驗實測의理論과方法과實施[illegible]數學의立場과敎育의立場의兩面으로부터切實히說來할뿐아니라、새로히考案된必要한器具의一切를擧하야此의說明과利用法을敎하고(附理論에在한、實際에在한)本來의意義의充實을圖하야一層叮嚀懇切히指導된것이다。算術敎授에在한本書는、特히國定算術書의實驗實測의關한本書는唯一의解說書가되는同時에必讀할만한好參考書이라。

判型 全一冊 定價 金三圓 送料 金二十一錢 頁數 三百二十余頁 挿畫 五百個

最新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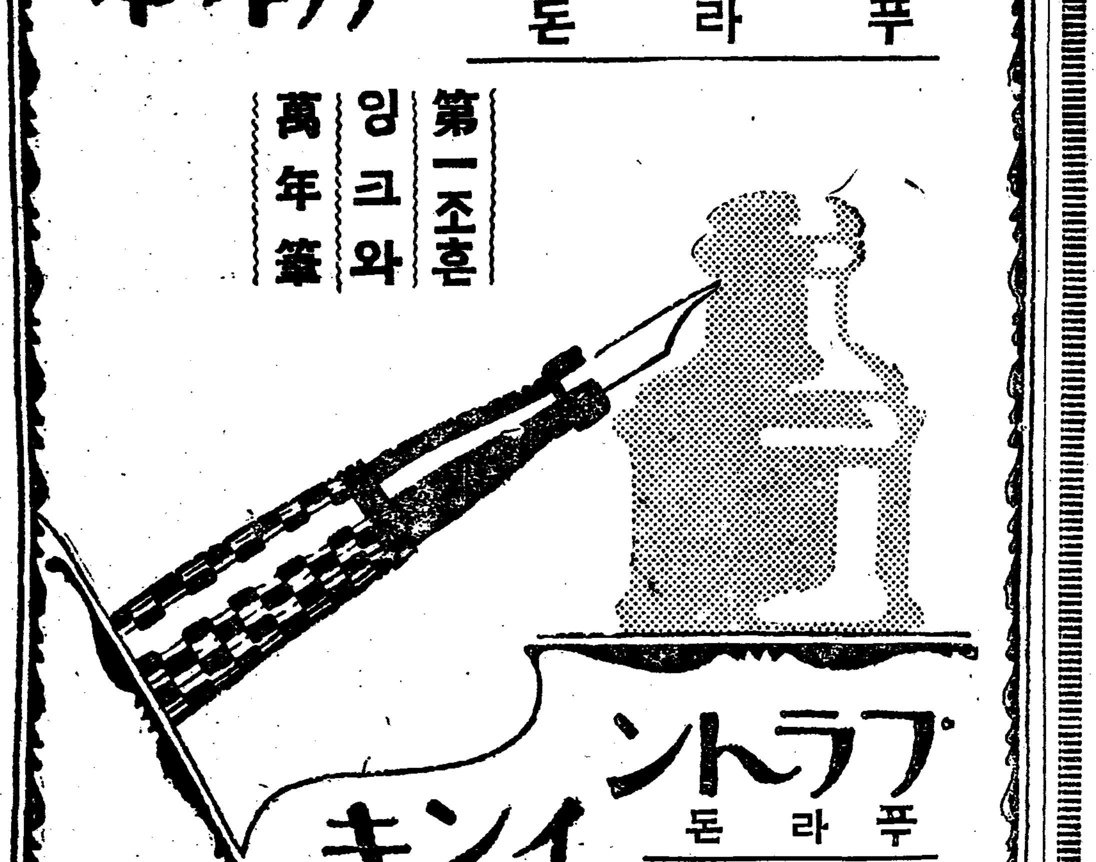
グラフ研究

廣島高等師範學校敎授 津山三郎先生校閱 · 廣島高等師範學校敎諭 新宮恒次郎先生著

本書는過般發行하야來白의歡迎을受하야[illegible]「그라후」敎授의繼續이라本書의價値는임에普及을不待하나니前著와가리少하야도本書의發行은「그라후」研究家諸君의福音이오必讀의參考書이라、「그라후」에統一된數學의體系、函數觀念의養成으로[illegible]合理主義의數學書、그에는算術도幾何學도、代數·三角法의材料도勿論이나[illegible] 微分·積分學도잇다。[illegible]

判型 全一冊 定價 金二圓八十錢 送料 金二十一錢 頁數 五百余頁 挿畫 六百個

東京市神田區表神保町二番地 東京修文館 振替口座東京二六四四番 · 大阪市東區博勞町五丁目 大阪修文館 振替口座大阪四七一番



プラトン萬年筆

푸라돈

第一조흔 잉크와 萬年筆

プラトンインキ

푸라돈잉크

プラトン文具株式會社製造

中山太陽堂文具部發賣

◇美味、安價、保健의福音◇

漸次로脚氣·胃病이生기겟사오니쓰듸쓴藥을잡수시기前에甘味가잇고

쌀의맛까지 맛잇게하는 評判의 福麥飯을 잡수서서 豫防하십시오

一、귀여운子女의成長에
一、老人네의長生에
一、父親의病患인胃病에
一、母親의젓이不足한데에

感歎할만치 자미잇게効果가잇슴니다

一日이라도速히잡수서서 一家의經濟와幸福을得하시오

特別히兒孩들에게福麥飯이歡迎밧는것은…… 福麥에는白米에包含되지아니한、人體에活力을주는「뷔다민」과特別히成長에必要한鹽、鐵을包含하고또蛋白가두숨」도白米보다甚히만슴니다、子女는작구長成하여야합니다、純眞한兒童들이特別히福麥은조와합니다 自然의힘가히偉大한것은업슴니다!

(說明書送呈)

東京銀座三ノ八 食糧研究株式會社 電話銀座二〇四·三八六九番 振替東京六九〇八〇番

元祖의 正宗은

サクラ正宗

사구라정종

日本酒의 最高標準

宮內省御用達 山邑酒造株式會社

呼吸器病特効新藥

桂田博士指導創製 各地病醫院御處方

オネフチゾール

오네후지소-루

フチゾール錠

후지소-루정

本品은「구와야고-루」의效果와「가루줌」療法과를兼備하야喘息、氣管支、肋膜炎、肺尖加答兒肺癆等에藥効를奏함

右의粉末에適當한補佐藥을配劑하야壓錠한것인데、家庭의保健藥으로實用됨니다

脚氣病特効藥

ベリスチン

베리스진

專門大家의實驗과研究에準據한理想的製品으로小量의應用으로一般脚氣病에特效가有함니다

包裝 溶液、粉末、注射液

○醫家에限하야試供品進呈

發賣元 大阪市東區平野町二丁目 岸田市商店 振替大阪三〇七九番

代理店 大阪市東區伏見町三丁目 日本藥品洋行 東京市日本橋區本町四丁目 田邊元三郎商店

各地藥局藥店에서販賣함

仁丹のハミガキ

最新學理로부터出生한 인단치마

●丸鑵入은薄荷腦(멘솔)와特殊한香料를增加한 別製優秀品으로서夏期用에特別히조습니다

再度嚴正한檢査를經由한絶對優秀品

仁丹의体温計

●北里金杉兩博士及高松吉武博士指導 ●醫博士廿大家의推奬 ●發明權五種을應用함 東洋第一의多量生産

懷中藥仁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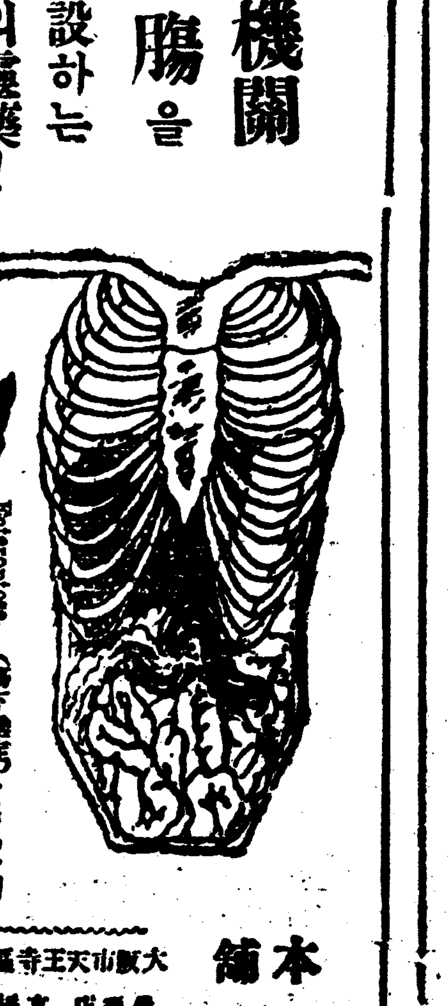
霖雨季의前後에는 仁丹을服用하시와胃腸의强健을圖하시오

金言 品行의端正은一種의財寶이라(西諺)

人體의機關되는胃腸을 새로히建設하는 無二의靈藥!

胃腸의運轉에故障을이르킨때、人體의營養이沮害되는것은、마치汽車로부터機關車를떼어는것과如하야사람의動神經全部가쉬게되야肺、心臟、脾臟、肝臟、腎臟、膵臟等의모든機能이漸漸衰弱하야차서體內에老廢物質이라하는毒瓦斯와가튼것이蓄積하야組織細胞를侵食하는結果身體의衰弱은날로其度數를加하야드대여死神의人事를밧게되는故로晋健가玆에胃腸과肺를새로히또한頑强하게꼿치는靈藥을紹介하야모든病苦를剪滅코자하는者이라……

丸露征



Enteroptose.(胃下垂症)一名「구리데-낼드」氏病이라하야慢性의胃腸病으로부터生起는것인데全治키困難하다는것이라

主効 消化不良、健胃强壯、胃痛、癪氣、嘔吐、胃腸加答兒、過飮、肺結核、肺尖、肋膜炎、氣管支加答兒、枯痰、虫齒、肺炎加答兒、腹痛、水土不服、食滯

定價 一圓 二圓 三圓 五圓 拾圓 五拾錢(試用分)

法을犯하는奸商輩가有하야本品의빈匣을利用한低物이잇사오니購買하실때에特別히注意하시옵소서

本舖 大阪市天王寺區下寺町四丁目 中島佐一藥房

代理店 高橋·丹平·小林·實業會社·田中·村上